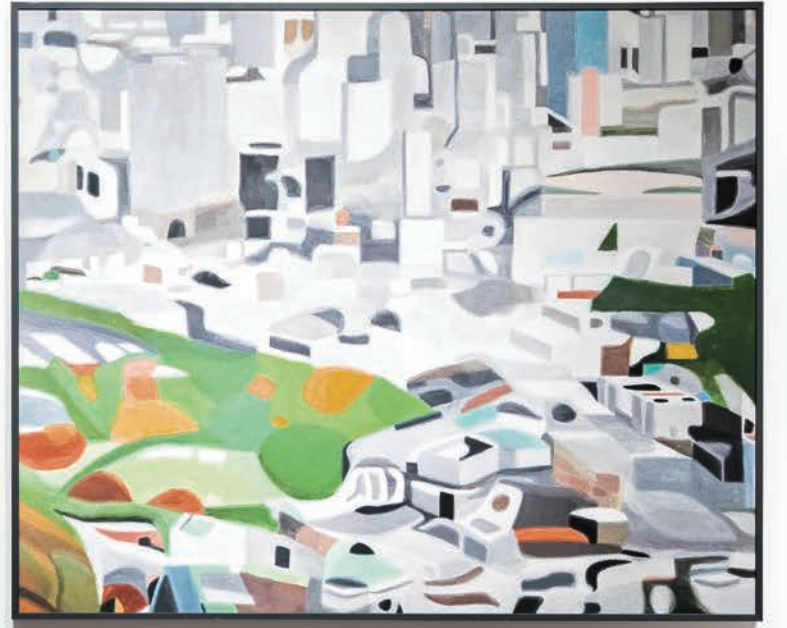


문화 서늘

2025 04 VOL. 218

문화+서늘



이전 서울문화재단

본 전시의 수익금 일부는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인 지원에 사용됩니다.
 후원: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후원회, 서울문화재단 후원자

문의: 02-1234-5678 | www.seoulculture.or.kr

〈리움 현대미술 소장품전〉

리움미술관은 삼성문화재단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대표 소장품과 최근 소장작을 대거 선보인다. 한국 근현대미술부터 아시아와 서구 현대미술까지 국제 미술의 흐름을 아울러온 리움의 현대미술 소장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다. 이번 전시는 리움미술관 재개관 상설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소장품 전으로, 35명 작가의 작품 44점을 소개한다. 옛 로망갤러리의 기억을 되살리는 작품부터, 간접적으로 새롭게 바뀐 M2 공간에서 만나는 특별한 코너 등 다층적인 관람 경험을 준비했다.

2월 27일부터 계속 | 리움미술관 M2 | 02.2014.6900



〈리움 현대미술 소장품전〉 전시장, 리움미술관 M2, 사진 김성태

1

국립극단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올해 초연 10주년을 맞은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가 명동예술극장에 입성한다. 에드몽 로스탕의 소설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를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소설의 시적이고 섬세한 언어를 살리면서도 '록산느'를 주체적인 인물로 재해석해 감각적인 연극으로 재탄생했다. 공연 내내 무대를 누비는 배우와 바이올린·첼로·피아노 등 연주자들의 특별한 앙상블로 초연 당시 '낭만활극'이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다.

4월 10일부터 27일까지 | 명동예술극장 | 1644.2003



국립극단

2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영등포구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는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에서 '모두의 정원'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다채로운 정원의 경험을 선물한다. 벚꽃과 예술이 어우러진 축제 현장에서 인기 브랜드의 포토존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구민과 자매도시가 함께하는 꽃길 걷기 퍼레이드에선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해 축제 분위기를 더욱 돋울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인스타그램(@springflower_yd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국 현대미술: 꿈과 사유〉

2015년 베트남 현대미술전을 시작으로 한국-동남아시아 간 문화예술 교류에 집중해온 한세예술24문화재단이 일곱 번째 국제문화 교류전으로 태국의 현대미술을 소개한다.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태국 작가들의 작품과 떠오르는 신진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탄생한 회화·조각·설치·미디어아트 등 독창적인 색감과 상징적 요소가 담긴 작품을 여럿 소개한다. 4월 5일부터 20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02.3779.0924

3

4

제46회 선농대제

신라부터 조선까지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농사의 신인 '선농'에 대해 임금이 주관한 제사 선농대제가 4월 18일과 19일 선농단역사공원 일대에서 재현된다. 1979년 복원한 이래 2019년부터 선농단보존회와 동대문문화재단에서 이어온 행사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재해석해 제례 봉행, 어가 행렬, 설렁탕 나눔 행사, 어린이 사생대회, 동대문구 예술인 공연 등을 아우르는 축제로 펼쳐진다.



동대문구

5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현대 희곡의 거장 아서 밀러의 대표작이자 박근형·손병호·손숙·예수정 등 배우의 열연으로 호평이 자자한 김재엽 연출 〈세일즈맨의 죽음〉이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꿈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허상과 인간성을 탐구하고, 아메리칸드림의 허상과 가족간의 갈등을 통해 현대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조명하는 작품. 평범한 세일즈맨이 꿈과 현실 사이에서 무너지는 과정을 그린다.

4월 19일 오후 2·7시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02.2289.3425

노원문화예술회관



6

강북문화재단

극단도시락이
4.19 연극제

빠져 허무적 대
던 판소리 보았
을 연극이 땅세
사람을 칠하는
회혜자의 눈꽃

2025. 3. 28. (토) - 4.19. (토)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관 (총 2번공연/연간) | 예약 | 단체석 1544-1555 | 문의 | 02-994-8501-3

419연극제
3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과 강북진달래홀에서
419연극제가 열린다. 강북구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4.19 혁명의
정신인 '자유민주', '정의', '평화'를
모티프로 한 축제다. 세 편의 연극이
무대에 오르며, 4월 4일과 5일에는
강북 청년 연극 포럼도 마련된다.
65% 할인된 가격에 네 편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패키지 티켓도 준비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강북문화재단
누리집 (gb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 19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강북문화예술회관
02.994.8501



7 8

판소리 뮤지컬 <적벽>

국립정동극장 대표 레퍼토리 <적벽>이 올해 여섯 번째 공연에 돌입했다. 2017년 초연한 이래 꾸준히 전통예술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장해온 작품이다.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하나이자, 삼국지를 대표하는 전투로 꼽히는 적벽대전을 소재로 현대적 감각을 더해 완성했으며, 화려한 퍼포먼스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는 전쟁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젠더 프리 캐스팅을 채택해 공연마다 새로운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주요한 관람 포인트.
4월 20일까지 | 국립정동극장 | 02.751.1500

국립정동극장

9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창단 60주년 <헤리티지>

1965년 창단한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60년 역사를 기리는 공연을 연다. 지난해 취임한 이승환 단장이 지휘하는 첫 무대로, 제목인 '헤리티지(유산)'의 의미를 담아 전통과 현대 감성이 어우러진 공연을 완성할 계획. 1부에서는 작곡가 김영동이 1982년 발표한 국악관현악 '단군신화'와 황병기 작곡 국악관현악과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침향무'를 들려준다. 2부는 뮤지컬 배우 카이의 협연과 작곡가 이지수·최지혜의 위촉 초연곡으로 채워져 1부와 대비되는 현대의 미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4월 18일 오후 7시 30분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02.399.1000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클래식에서 컨템포러리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4월 개관하는 GS아트센터의 첫 무대는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춤으로 채워진다. 다양성을 실천하며 나름의 미학을 구축해온 이들은 13년 만에 성사된 한국 무대에서 컨템포러리 발레 레퍼토리를 펼쳐 보인다. 1947년 초연한 조지 발란신의 <테마와 베리에이션>, 미국에서 주목받는 안무가 트와일라 타프의 <인 더 어퍼 룸>, 무용수 출신이나 안무작으로 더 주목받는 제마 본드의 신작 <라 부티크> 등이다. 서희·안주원·박신미·한성우 등 현재 발레단에서 활약하는 한국 무용수들도 만나볼 수 있다. 공연 일자별 프로그램이 상이하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한다.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 GS아트센터 | 02.2005.0101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성동문화재단은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피가로의 결혼>(연출 김숙영)을 소월아트홀 무대에 올린다. 피가로와 수잔나의 대담한 이야기로 계급 간 갈등을 풍자와 유머로 풀어낸, 친숙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과 발랄한 이야기를 담은 희극 오페라다.
4월 11일과 12일 | 소월아트홀 | 02.2204.6405



클래식악기 탐구생활

서초문화재단은 예술의전당 인근 서리풀 악기거리 현악기 공방에서 악기 장인과 바이올린·첼로를 제작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 '클래식악기 탐구생활'을 진행한다.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4월 1일부터 15일까지 5월 수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3~6학년생과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 서리풀 악기거리 인근 악기공방 | 02.3474.3921



12 13

11

전래동화 뮤지컬 음악회

음악으로 듣는 흥부놀부, 심청, 공쥐팔쥐

(화)11시/14시 (목)14시
광진어린이공연장
25.4.5.(토)~6(일)



15

《Ha Chong-Hyun》
2015·2019·2022년에 이어 국제갤러리에서 3년 만에 하중현 작가의 개인전을 마련했다. '회화란 무엇인가'라는 화두 아래 반세기에 걸쳐 유화를 다뤘은 작가의 지속적인 실험과 물질 탐구의 현주소를 조망하는 자리다. '접합' 연작과 '이후 접합' 연작에 이르기까지 2009년부터 최근까지의 작품 30여 점을 통해 하중현의 작업 세계를 펼쳐낸다.
5월 11일까지 | 국제갤러리 K1·한국 | 02.735.8449

전래동화 뮤지컬 음악회
조선 시대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전래동화와 음악 연주가 만나 함께 떠나는 어린이를 위한 고전 음악 여행! 우리에게 친숙한 동화를 뮤지컬 어법으로 새롭게 창작해 실황 연주와 어우러진 뮤지컬 배우들의 노래로 들려준다. 고전과 현대를 잇는 특별한 음악 여행을 통해 흥부 놀부·심청·공쥐 팔쥐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나보자.

4월 5일부터 6일까지
광진어린이공연장
02.2049.4700

14

16

(김수현)
그가 너무 늦었다며 계산을 했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갑자기 인사도 없이 행하니 가버렸다. 무슨 일이지? 나는 그런 그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뻔히 쳐다봤다. 지난 연애의 오만가지 기억이 그 짧은 순간에 한꺼번에 떠올랐다. 다음날 밤비상에서 뜨거운 커피를 보약처럼 마시며 해장을 시도하는데 뭔가 주저하는 듯한 후배가 내 옆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거다. "언니, 나 고백 받았어요. 어제 그 선배님한테." **김관리, 표정관리!**

연극 <거의 인간>
올해 금나래아트홀 첫 시리즈 '아트앤테크'로 선보이는 작품은 구두리 작·김수희 연출의 연극 <거의 인간>이다. 202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휴먼'을 주제 삼아 낭독공연으로 선보인 작품을 2024년 국립정동극장 세실 '창작ing'에서 발전시켰다. 작품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2033년, 두 여성 예술가가 창작자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글쓰기와 '인공 자궁'이라는 소재를 통해 사회·윤리적,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정의되지 않은 신인류를 무대 위로 불러온다.
4월 4일과 5일 | 금나래아트홀
070.8831.5347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SCENE

-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노들글로벌 예술섬
- 10 칼럼 살아있는 노들섬, 그 공존의 의미
 - 12 인사이트 물 위의 섬,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까지
 - 18 스토리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어제와 오늘, 그 미래

- 28 예술가의 진심 김재업의 연극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 34 예술인 아카이브 마키토이
- 36 예술인 아카이브 위혜승
- 38 페이퍼로그 재무회계팀 김지연 예술과 숫자가 어우러지면

- 40 인사이트 손끝에서 시작되는 특별한 하루 피아노 서울
- 42 인사이트 시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2024년 대표작은? 제3회 서울예술상

- 48 트렌드 이것은 시대적 필연 K-팝과 클래식 음악의 협업
- 50 해외는 지금 트럼프 2.0 시대, 문화예술의 방향은

COLUMN

- 54 동시대적 고전 읽기 나르시시스트 연기하기의 역할
- 56 스크린 너머의 세상 '우리'를 넓혀나가는 이야기
- 58 현대음악에 주파수를 맞추면 음악, 시간을 다르게 감각하는 일
- 60 춤, 이면의 몸짓 사랑한다는 말 대신
- 62 컨트리뷰터

ASSOCIATED



COVER STORY
노들서가 '아트스페이스.엣지' 노들서가 계단 앞, 네모 반듯한 공간이 공연·시각예술·문학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예술 경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표지에 담긴 작품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허겸이 바라본 도시의 인상을 재현한 '서울' 시리즈.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송형중 편집총괄 이주영 기획 편집 안미영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kki 인쇄·제작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5년 4월 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FOCUS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노들글로벌 예술섬



한강의 자연과 도심이 맞닿는 지점에 인공적으로 빚어진 노들섬은 백 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도시 곳곳으로 발걸음하기 참 좋은 봄,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예술섬'으로서 이곳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다.

살아 있는 노들섬, 그 공존의 의미

새로이 만들어질 노들섬에 남아 있는 자연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것은 노들섬의 욕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바로 문화다. 그것은 살아 있음이다.

도시는 문화를 상징한다. 문화는 한편으로 자연을 자양분 삼고, 한편으로는 자연과 대립하며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심상이 있다. 하나는 우리의 근원이 되며 우리를 품어주는 어머니 대지로서의 자연이다. 에텐동산, 파라다이스, 무릉도원, 서천꽃밭... 모든 문명에서 자연은 이상향으로 그려진다. 또 다른 하나는 홍수와 산불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하며 번덕스러운 무자비한 신으로서의 자연이다. 모두를 삼키는 홍수와 가뭄, 마녀와 도깨비의 숲, 호랑이와 늑대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산, 모든 문명에서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원천이기도 했다. 극락정토와 아르카디아의 자연이나 불가항력적 재앙으로서 자연, 모두 인간의 타자를 의미한다. 인간이 과학과 기술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이상향을 건설할 수 있게 되고, 자연의 힘을 통제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게 됐을 때 인간은 자연을 상실한다. 자연은 문화의 잃어버린 빈자리, 욕망의 텅 빈 중심으로서의 타자다.

그런 자연과 문화의 경계에서 노들섬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욕망의 빈자리였다. 노들섬은 원래 섬이 아니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의 영역이 되었다가 물이 빠지면 너른 백사장이 드러나 땅이 되는, 규정되지 않은 자연의 영역이었다. 1917년 일제가 인도교를 놓으며 석축을 쌓고 언덕을 만들면서 지금의 노들섬이 만들어졌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던 이 땅에 고정된 문화의 영역이

자리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 작은 언덕은 여전히 자연의 일부였고, 사람들은 너른 백사장에서 피서를 즐기고 물이 얼면 썰매를 탔다. 1968년 한강개발계획이 착수되자 한강은 거대한 인공의 호수가 됐다. 한강의 경계는 단단한 콘크리트로 정비되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 한강은 온전히 도시의 일부가 됐다. 넓은 백사장의 모래는 개발을 위한 부지와 도로를 만드는 데 사용됐고, 석축을 쌓은 언덕 주변의 땅은 섬이 됐다. 1969년 한 기업을 유원지를 짓기 위해 섬을 사들이고 매립해 섬을 커졌다. 하지만 서울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노들섬은 다시 모래가 쌓이고 새들이 찾아오는 자연이 됐다.

2005년 서울시가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들섬은 비로소 문화의 영역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계획은 무산되고 노들섬은 자연으로 남는다. 2019년 복합문화기지가 만들어져 노들섬이 다시 문화 영역으로 편입되자 자연은 문화에 그 자리를 내줘야 했다. 섬의 동편은 그동안 자라난 숲을 그대로 남기로 했고, 서편은 문화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서편에 살던 맹꽁이들은 동편으로 이사해야 했다. 그렇게 한편은 문화가 자리잡고, 한편에는 자연이 그대로 남은 노들섬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시 2023년, 노들섬에 서울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문화의 영역으로 통합하려는 공모전이 개최됐고 영국의 저명한 아티스트 토머스 헤더윅의 '소리풍경 Soundscape'이



당선안으로 선정됐다.

자크 라캉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 문화적 활동의 원동력은 욕망이며, 욕망의 실체는 알고 보면 비어 있는 주체의 빈자리, 일종의 공동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욕망은 채워질 수 없다. 만약 욕망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었다면, 도시는, 예술은, 문화는 어느 지점에 완성돼 더 이상의 발전도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존재하지 않던 노들섬의 자리에 교각을 위한 석축이 지어지자 이는 비어 있는 욕망의 빈자리를 만들어냈고, 노들섬은 끊임없이 확장됐다. 노들섬을 향한 욕망이 커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욕망을 담은 빈자리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공동의 크기는 물리적 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백사장, 유원지, 관광단지, 오페라하우스, 복합문화시설, 랜드마크... 노들섬에 투영된 모든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수십 개의 노들섬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문화적 욕망을 채우기도 벅찬 이곳에 여전히 맹꽁이의 숲은 남아 있다. 헤더윅의 당선작에도 맹꽁이 숲은 그 자리에 있다. '소리풍경'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랜드마크는 기존 지상을 차지하지 않고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도, 숲도 그대로 남는다. 아예 기존의 숲을 파헤치고 거대한 문화적 랜드마크와 인공의 자연을 제시한 안도 있었지만, 다행히 땅보다는 공중에 더 관심이 많은 '소리풍경'이 선정되면서 맹꽁이와 나무들은 원래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자. 우리는 늘 자연과 문화의 공존을 말하지만 이는 일종의 수사일 뿐, 애초부터 자연과 문화의 공존은 불가능한 것이다. 자연과 문화는 서로의 타자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문화의 공존은 사실 자연을 길들여 온전히 문화의 영역으로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선악도 도덕도 없이 가공할 힘으로 무자비하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동시에 보듬어주기도 하는 신적인 자연을 살해해야 우리는 자연과 공존할 수 있다. 새로운 노들섬을 만들기 위한 공모전에서 동측 숲은 문화와 동등한 타자의 자연이 아니라 언제나 소거돼도 상관없는, 문화를

위한 백지상태의 빈자리였다. 자유롭게 섬을 활용하라는 공모 지침은 실제로는 그 공간에 자연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니 온전한 문화의 상징을 세우라는 신탁이었다. 당연히 어떠한 심사위원의 평을 봐도 기존의 숲이나 맹꽁이의 보금자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래서 노들섬의 자연은 잃어버리면 안타깝고 하루이를 생각이 나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애써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가 찾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그저 그런 귀고리였다. 흥미롭게도 노들섬을 위한 그 어떠한 안도 자연을 존중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안은 자연을 문화의 형태로 해석해 상징으로써 존경을 표했다. 풍경, 물결, 구름, 군도, 물, 백로. 저마다 주제는 다르지만, 모두가 똑같이 온전히 문화의 영역으로 종속시킨 인공의 자연이 나무, 물, 맹꽁이의 숲을 압도해 내려다보는 랜드마크의 거석을 모범 답안처럼 제시했다.

오해는 하지 말자. 노들섬에 남아 있는 자연이, 맹꽁이 숲이 소중하니 잘 지켜야 한다는 진부한 생태적 윤리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노들섬은 그런 장소가 아니다. 그렇다면 새로이 만들어질 노들섬에 남아 있는 자연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것은 노들섬의 욕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바로 문화다. 그것은 살아 있음이다. 모든 결여가 채워져 욕망이 완성되는 경우는 오로지 타나토스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죽음 충동은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욕구다. 생각해 보면 노들섬이 자연으로 남았던 시간은 우리에게 잊힌 시간이었다. 반면 노들섬이 살아 있던 순간은 무엇인가를 욕망하던 순간이었다. 문화의 영역에 속한 시간이었다. 역설적으로 온전히 문화의 영역으로 자연을 편입시킨 이 순간, 그 자연은 욕망의 빈자리가 된다. 그 빈자리로 인해 다시 문화적 욕망은 노들섬에 투영될 것이다. 그 어떤 위대한 백색의 신전이 노들섬을 차지하더라도 아무리 초라하고 불품없는 자연이 존재하는 한 그 자리는 거대한 공동이 돼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과거의 신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문화의 신을 세우려는 욕망은 노들섬을 통해 생의 충동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살아 펄떡이게 할 것이다. 그것이 노들섬이라는 문화의 상징에 존재하는 자연의 의미다.

물 위의 섬,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까지

도시의 잠재력은 육지에만 머물지 않는다. 바다와 강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각기 다른 역사와 환경 속에서 생태·문화·관광 등 임무를 수행하며 도시의 상징이 된 섬을 살펴본다.

산업 현장에서 예술허브로, 파리 세갱섬

센강 위에 있는 세갱섬Île Seguin은 시대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로 변모하며 프랑스 현대사를 고스란히 반영한 곳이다. 불로뉴 빌랑쿠르Boulogne-Billancourt와 세브르Sèvres 사이 센강 한가운데 있는 이 섬은 다양한 역사를 거쳐 파리 서쪽의 문화 중심지로 거듭났다.

평범한 농경지였던 세갱섬은 17세기에 베르사유 궁전과 파리를 잇는 요충지 역할을 했다. 18세기 들어 프랑스의 가죽 공업을 이끈



세갱이라는 인물이 가죽 태닝 공장을 세우면서 발전했고, 19세기 초에는 수많은 노동자가 유입되며 가죽 산업 중심지로 명성을 떨쳤다. 벨 에포크 시대에는 보트 타기와 낚시, 비둘기 사냥 등 여가와 휴식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당시 윌리엄 터너, M. W. Turner와 장 바티스트 카미유 코로Jean-Baptiste-Camille Corot 같은 예술가들이 센강의 빛과 풍경을 화폭에 담기도 했다.

1919년 프랑스 자동차 산업을 이끌던 루이 르노가 세갱섬을 인수해 르노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서 섬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1950년대까지 프랑스의 산업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자리한 이곳은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오랜 시간 방치되고 만다. 하지만 2008년에 오드센 지역 의회가 섬을 중심으로 센강 주변을 예술과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오드센 문화지구 프로젝트La Vallée de la Culture des Hauts-de-Seine를 시작하며 다시 활기를 띤다. 반 시계루와 장 가스틴이 공동 설계한 공연장 라 센 뮈지칼La Seine Musicale이 섬에 들어서며 파리를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주목받았다. 영화관·호텔·레저 시설뿐 아니라 시민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도 늘어났으며, 다양한 조각 작품이 자리했다. 이렇듯 프랑스 현대사의 흐름과 함께 성장한 세갱섬은 현재도 예술과 자연, 삶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거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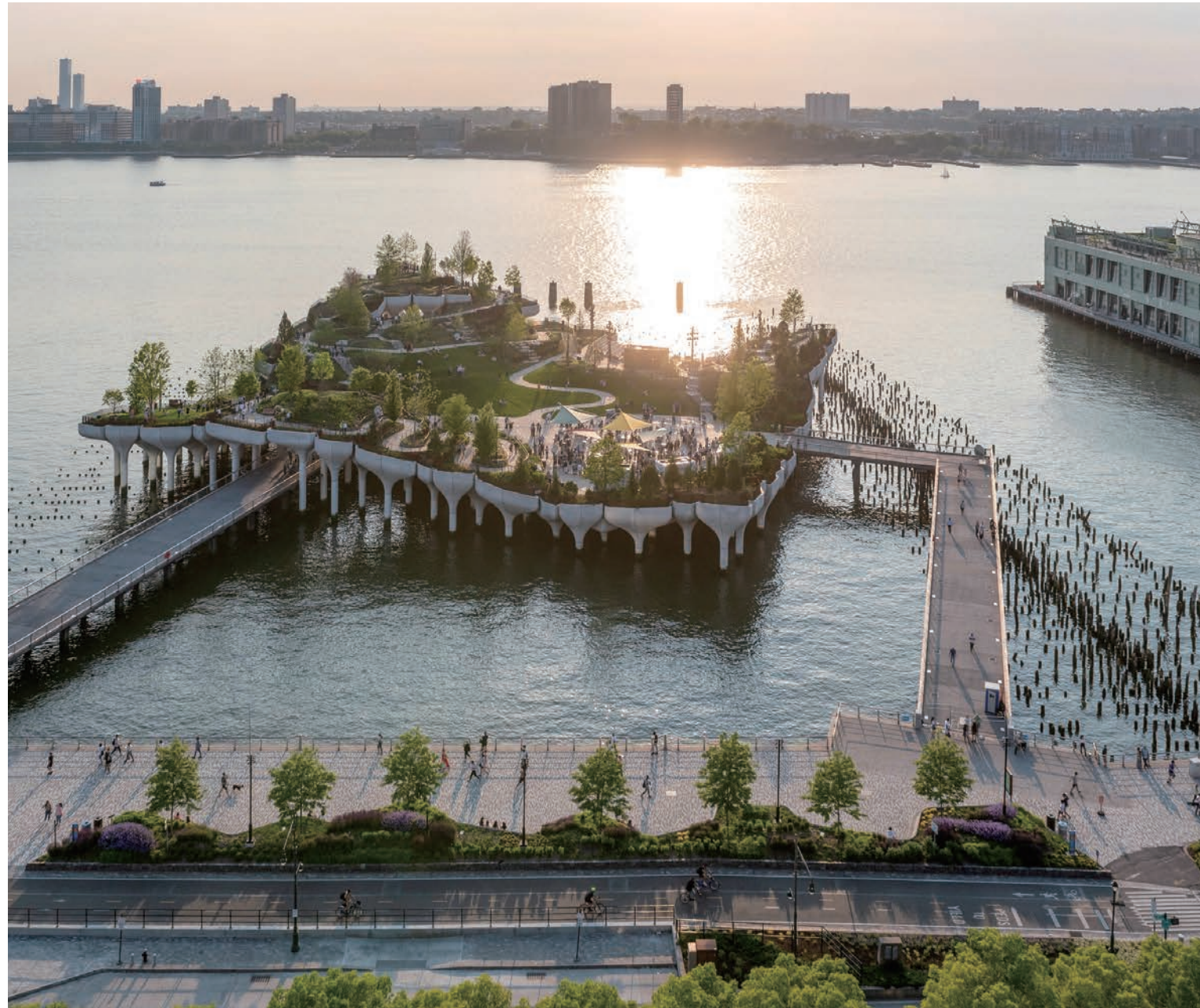
↑ 센강 중심에 자리한 세갱섬의 풍경 ©Shigeru Ban Architects
← 파리를 대표하는 콘서트홀 '라센 뮈지칼' ©Arthur Weidmann

도심 속 오아시스, 뉴욕 리틀 아일랜드

맨해튼 허드슨강 위에는 독특한 풍경을 연출하는 인공 섬이 있다. 마치 물 위에 공원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리틀 아일랜드Little Island다. 2021년 개장한 약9,712m² 규모의 이 섬은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뉴욕의 사랑을 받고 있다.

리틀 아일랜드는 20세기 초부터 뉴욕의 여러 역사적인 순간이 쌓인 부두Pier 54에 터를 잡았다. 1912년 타이태닉호 참사 당시 생존자들이 카르파티아호를 타고 도착한 곳이자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격침으로 침몰한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출항한 곳이 바로 이 부두다. 이후 수십년간 항구로 운영되다가 1986년부터 뉴욕의 대표적인 LGBTQ+ 행사 '댄스 온 더 피어Dance on the Pier'의 주요 무대가 됐을 뿐 아니라 1998년 허드슨강 공원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강타하면서 부두가 심각한 피해를 보자 2013년 달러 폰 푸르스텐베르크 가족 재단The Diller-von Furstenberg Family Foundation의 후원으로 재개발이 추진됐다. 영국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이 설계를 맡아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듯한 형태의 곡선형 콘크리트 기둥 280개 위로 공원이 조성됐다. 기둥 위에 식물, 잔디밭, 소규모 공연장과 원형 극장 등을 설치해



↑ 뉴욕 리틀 아일랜드 ©Timothy Schenck
→ LGBTQ+ 행사 '댄스온더피어' ©Chris Gagliardi

방문객이 물 위에서 자연을 느끼면서도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유도했다.

리틀 아일랜드는 개장 후 빠르게 뉴욕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았고, 첫째 100만 명 넘는 방문객을 모으며 관심을 끌었다. 뉴욕의 랜드마크이자 도시의 지속 가능한 재개발 사례로 주목받는 리틀 아일랜드는 과거의 역사적 흔적과 현대가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도시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치수사업지에서 친환경 도시 공간으로, 빈 도나우인젤

오스트리아 빈의 도나우강(다뉴브강)은 예전부터 잦은 범람으로 홍수가 자주 일어나던 지역이다.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자 빈시는 1972년부터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치수 사업을 시작했다. 강 주변에 노이에 도나우(Neue Donau, 신 다뉴브)라 불리는 물길을 만들고, 공사 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활용해 섬을 조성했다. 이렇게 길이 21km에 달하는 인공 섬

↓ 도나우강 주변에서 열리는 도나우인젤페스트 ©Marleen Linke

'도나우인젤(Donauinsel)'이 탄생했다.

도나우인젤은 평소 안정된 수위를 유지하다가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수문을 열어 물을 신 다뉴브로 분산시키고 이후 다시 수문을 닫아 물을 정화한다. 이 시스템 덕분에 도나우강 주변 지역의 홍수 위험은 현저히 줄고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수역이 조성됐다.

도나우인젤은 현재 시민의 대표적인 레저 공간이다. 섬 전체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이어질 뿐 아니라 수상 스포츠 시설, 작은 보트가 드나드는 마리나, 조류 서식지 같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1984년부터는 여름마다 유럽의 대표적 야외 음악 축제 도나우인젤페스트(Donauinselfest)를 개최하며 섬의 약 6.5km 구간 전체를 활기찬 음악으로 채우는데, 이 대규모 축제에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이 찾는다.

도나우인젤은 기존의 하천 정비 사업과 달리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한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빈을 세계적 친환경 생태 도시로 끌어올렸다. 자연 속에서 휴식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나우인젤은 살아 있는 도시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거쳐 약 1.6km²까지 확장됐다. 1918년 토드 조선소가 이곳에 들어선 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활발하게 선박을 건조했고, 본격적으로 산업 중심지로 떠올랐다. 당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원자재를 싣고 오는 선박이 드나들면서 활기를 띠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섬의 역할은 더욱 증대됐다. 1940년대 초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은 시애틀을 군수물자의 거점으로 삼았고, 전쟁 후에도 하버 아일랜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비록 1939년 샌프란시스코 박람회를 계기로 트레저 아일랜드 Treasure Island가 생기면서 규모 면에서 '미국 최대'라는 타이틀은 내렸지만, 시애틀 경제를 지탱하는 해운과 물류의 핵심적인 역할은 계속 이어졌다. 현재도 컨테이너 물류, 철도와 트럭을 통한 물류 운송 등 시애틀항의 주요한 산업 활동 대부분이 이곳에서 이뤄진다.

최근 하버 아일랜드는 친환경적인 항만으로 재개발과 물류 효율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 문제까지 고려한 미래 지향적 항만으로 변화하려는 것이다. 전쟁과 산업화라는 격동의 역사를 경험하고 친환경 도시로 변화를 꾀하는 하버 아일랜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 친환경 도시로의 변화를 꾀하는 시애틀 하버 아일랜드 ©Pink Sands Resort

해상 요새가 대표 관광지로, 도쿄 오다이바

쇼핑몰과 박물관, 각종 문화시설로 유명한 오다이바 Odaiba는 도쿄만 위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섬이다. 도쿄의 랜드마크이자 관광지로서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이 섬은 원래 관광지와는 거리가 멀다. 1853년 에도 시대에 미국 페리 제독의 흑선 내항 이후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요새로 건설됐기 때문. 섬 이름인 '오다이바' 역시 포대 砲臺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시간이 흘러 오다이바가 다시금 주목받은 건 1980년대 말이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정부는 도쿄만 위에 작은 섬들을

매립해 하나의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을 경제가 급격히 붕괴하며 개발이 중단됐고, 섬은 오랜 기간 미완성 상태로 방치됐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후지 TV 본사, 도쿄 빅 사이트 같은 상징적인 건물이 생겨나 점점 현재의 모습을 갖추나갔다. 다이버시티 도쿄 플라자, 아쿠아시티 오다이바, 도요타 메가 웹 등 유명 쇼핑몰과 박물관이 차례로 들어섰고, 레인보우 브리지와 미니 자유의여신상등이 자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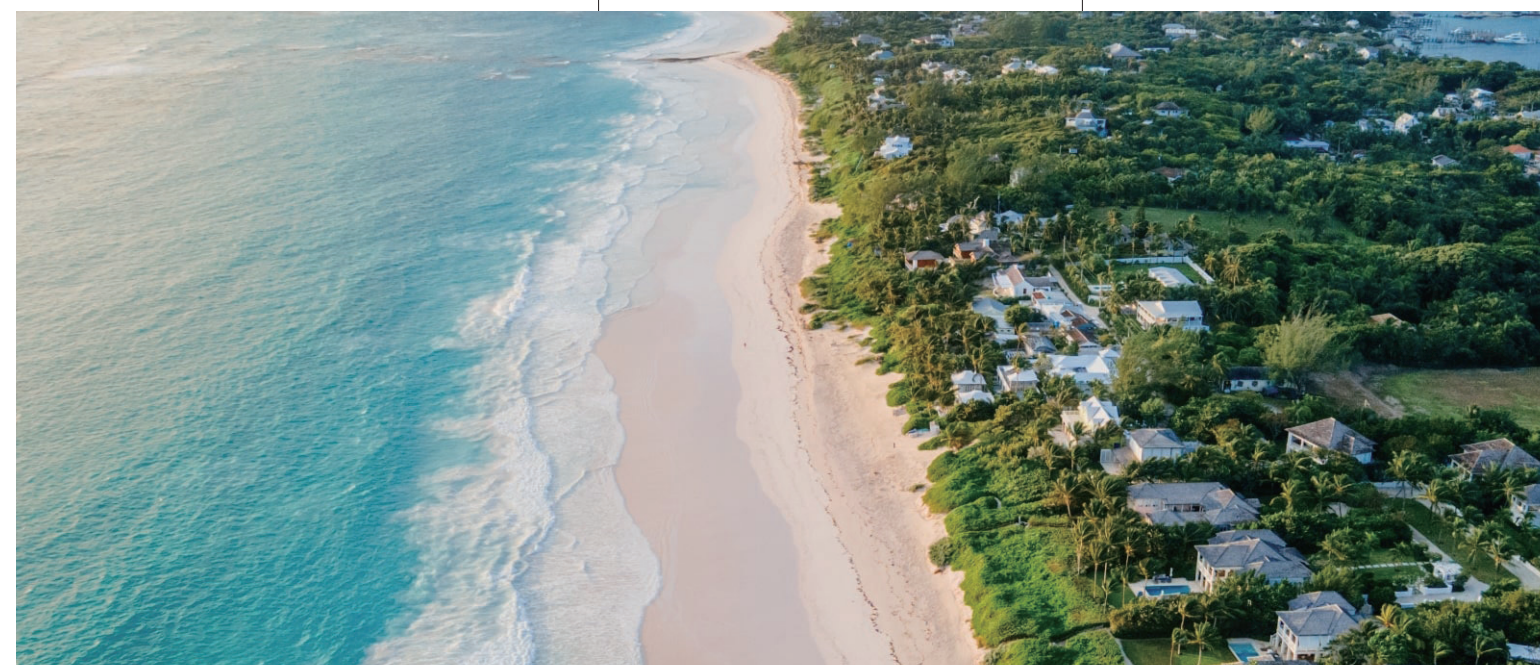
특히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 때는 오다이바에서 철인3종 경기와 수영 장거리 종목 경기가 개최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렇게 군사적 용도의 요새에서 출발한

↑ 일본 도쿄를 대표하는 관광지 오다이바 ©Nesnad

오다이바는 이제 일본 수도 도쿄를 대표하는 상징적 관광지가 됐다. 지금도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공간으로서 끊임없이 진화하며 도시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삶을 동시에 담고 있다.

해운·물류의 거점, 시애틀 하버 아일랜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항 근처 두와미시강의 준설도와 시애틀 도심에서 나온 흙을 활용해 만든 인공 섬이 있다. 바로 하버 아일랜드 Harbor Island다. 처음 약 1.4km² 규모로 조성된 이곳은 곧 조선업과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발전했고, 1967년 확장 공사를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어제와 오늘, 그 미래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에 둘러싸여 쉼을 만끽하고 문화예술을 누리는 곳, 지난해부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들섬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며 새 물결에 몸을 실어본다.

한강 노을 맛집, 불꽃놀이 숨은 명당, 한강 치맥 피크닉, 서울 야경 명소... 이 모든 키워드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노들섬'일 것이다. 이미 M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나만 알고 싶은',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는' 명소로 소문난 곳이 노들섬이다.

무려 백 년 전 이촌동과 노량진을 잇는 교량을 지탱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노들섬은 2019년 9월, 456석(스탠딩 708석)의 중규모 공연장과 전시 공간, 잔디마당, 리허설 스튜디오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은 서울 용산이라는 뛰어난 접근성, 24시간 개방된 주차 공간과 한강공원, 편리한 식음시설 등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서울문화재단에서 공공위탁으로 운영하며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 지면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의 손길을 거쳐 재탄생한 노들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 가을이면 한강을 물들이는 고전의 향연 '한강노들섬클래식'

일년이
노력으로
새 숨결 얻은
노들섬

2024

노들섬의 지난 한 해 방문객은 2023년 대비 약 35만 명 증가한 약 150만 명에 달한다.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로서의 입지를 확인한 것. 한때 콘텐츠도, 방문자도 없어 '유령섬'으로 불리던 노들섬에 서울문화재단이 새 숨결을 불어넣었다.

지난해 노들섬의 공연 사업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은 기존 대비 66% 확대된 연 40회 공연을 진행했다. 이에 관람객 숫자도 전년 대비 41% 증가한 약 2만 4천 명에 달했다. 상설 무대를 활용한 다양한 공연을 비롯해, 노들섬 잔디마당에 누워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노들 켜쳐 캠핑>, 뉴진스님과 박문치·이보람·타이거디스크가 함께한 <K-팝 페창데이> 등 다채로운 콘셉트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서울문화재단과 MOU를 맺은 아모레퍼시픽재단과 함께한 <유행화장展>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연계한 EBS 스페이스 공감 20주년 기념 전시 <20:04-20:24>는 더욱 많은 시민에게 노들섬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8월 진행한 'K-켄치 특별주간'도 큰 호응을 얻었다.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청년마음콘서트>를 준비하고 스텔라장·윤마치MRCH,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이 참여해 청년들의 고민을 음악으로 공감하고 위로했으며, EBS 스페이스 공감 20주년 기념 공연 <We are SPACE RECORD:er>에는 브로콜리너마저·서울전자음악단·잔나비가 참여해 열정적인 공연으로 노들섬을 찾은 시민을 열광시켰다.

노들섬은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가 가진 문화적 기반도 적극 활용했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서울뮤직페스티벌과

← 노들갤러리 전시
 ↳ 노들서가를 오간 시민의 흔적
 ↓ 가정의달 5월이면 노들섬에 활기를 불어넣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서울미식주간을 비롯해 서울서커스페스티벌·서울비댄스페스티벌·한강노들섬클래식 등 재단이 주최하는 여러 축제와 협업했다. 특히 5월에 펼쳐진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의 경우 일일 방문객이 3만 명에 육박해 노들섬 개관 이래 최대 일일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또한 다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누리집을 구축하고, 자체 홍보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왔다.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시민이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노들섬의 독특한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일부 노후한 공간의 바닥재를 보강하고 노들섬 상단부에 오솔길을 조성하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글로벌
예술섬이라는
물결을
타고

2025

↑ 섬을 들쭉이게 한
K-팝 떼창데이
→ 거리 피아노 프로젝트
'피아노 서울'

창립 20주년이었던 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은 노들섬 운영을 본격 시작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예술섬'으로 나아가기 위한 항해를 떠났다. 이에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표 공연 사업인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을 통해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이어왔다.

노을 아래,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
2025년에는 한강의 자연과 도심이 맞닿은 노들섬이 음악으로 가득 채워진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4월, 노들섬에서 펼쳐지는 '노들노을스테이지'는 붉게 물드는 노을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감상하는 특별한 무대다. 올해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이라는 비전을 담아 한류의 원류인 국악에서부터 K-팝, 창작발레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총 40회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시민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강의 풍경과

어우러지는 대극장 규모(약 18×12m)의 야외 특설무대가 새롭게 조성된다. 4월 주말에는 'K-컨템퍼러리 국악'을 중심으로 공연이 펼쳐지며, 9월 주말에는 K-팝·인디음악·월드뮤직·발레 등 여러 공연이 함께한다.

특히 봄 시즌에는 젊은 국악인들이 선보이는 강렬한 K-비트가 수면 위로 울려 퍼질 예정이다. 4월 12일, 국악과 컨템퍼러리 음악을 넘나드는 위뮤·오티움(김윤희×서영도)·서도밴드가 첫 무대를 장식하며, 4월 13일에는 빠리루·돌라밤·탁보너밴드가 독창적인 사운드로 봄밤을 물들인다. 이어서 4월 19일, 조의선·구이임·김태연이 새로운 감각의 무대를 선보이고, 4월 20일에는 시도·반도·연댄스컴퍼니가 감각적인 퍼포먼스를 펼친다. 각기 다른 개성과 색깔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K-음악의 스펙트럼을 한껏 확장할 예정이다.



공연뿐만 아니라 전통 음료 시음과 전통놀이·전통DIY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음악과 체험을 결합한 이 특별한 행사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시민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열린 무대인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노들섬 잔디밭에 기대 부드러운 봄 햇살을 느끼며 흐르는 멜로디에 몸을 맡기는 순간, 일상의 스트레스는 한강 바람에 실려 사라질 것이다. 다양한 부대행사와 이벤트가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단순 음악 공연을 넘어, 한강의 노을 아래 자연과 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노들섬에서 펼쳐지는 '노들노을스테이지', 음악과 예술이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말자. 상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에 관한 안내는 노들섬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면 위로 피어나가는 새 목소리

"인디음악, 흥대만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트렌드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강 위 작은 섬, 바로 노들섬이 뜨겁다. 과거엔 그저 지나쳤던 이곳이, 올해 인디음악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문화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듬하여 '노들인디전', 인디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미 이곳을 '핫 플레이스'로 찍어두었다.

← 일상속 예술공간 콘서트 '서울스테이지'
 ← 3월 '노들인디전'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까치산 단독 공연
 → 시민의 섬 공간이 돼주는 노들서거의 풍경

'인디음악=흥대'라는 공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노들섬은 그 틈에서 조금 다른 존재감을 드러낸다. 456석 규모의 노들섬 라이브하우스는 인디뮤지션들이 꿈꾸는 '큰 무대 진출'의 중요한 발판이지만, 높은 대관료와 운영비라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정작 공연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야심 차게 내놓은 카드가 바로 '노들인디전'이다. 대형 공연장에서의 경험은 부족하지만 유망한 잠재력을 지닌 인디뮤지션에게 무료로 대관과 공연 운영, 홍보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시민에게는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해 부담 없이 인디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노들섬 안에서 과거 흥대 초창기의 열정을 떠올리게 할 만큼 반가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시리즈 첫 무대의 주인공은 밴드 까치산이었다. 지난 3월, 예매 개시 1초 만에 전석이 매진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팝 펑크록과 파워 팝·J-록을 혼합한 '애니메이션 록'이라는 독특한 콘셉트 덕에 예매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밴드 까치산의 지난 공연은 관객과 함께 무대를 완성해나가는 에너지 넘치는 축제 그 자체였다는 후문이다. '노들인디전'의 다음 주자들도 만만치 않다. 크리스피·캔트비블루·극동아시아타이거즈·심아일랜드·전자양·잭킹콩 등 7개 팀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마다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1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이들은 이미 음악적 개성과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소문난 팀이다. 이로부터 심상치 않은 '극동아시아타이거즈'의 무대를 기다리는 재미도 클 것이다.

노들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디 scene을 지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망한 뮤지션에게는 더 큰 꿈을 키울 기회를, 관객에게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은 보석 같은 음악을 만나게 해주자 하는 꿈 때문이다. 한국 인디음악 30주년을 맞아 올해 펼쳐지는 '노들인디전'이 단순한 공연에 그치지 않고 인디음악의 다음 30년을 여는 화려한 서막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자! 이제 익숙한 라이브





클립을 넘어 노들섬으로 음악 탐방을 떠나보면 어떨까? 특별한 음악과 색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노들서가에서 마주하는 예술적 순간
우연으로 시작해 우연으로 끝나는, 마치 선물 같은 시민의 휴식처 노들서가. 이곳의 1층에는 인공지능 작곡의 우연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재형의 작품 <기계즉흥곡>이 자리하고 있다.

자연의 예측 불가능한 흐름을 음악으로 변환하는 이 작품은 인공지능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오션'이 그려진 어항 속 물고기들은 자유롭게 유영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표'가 된다. 일정한 속도로 스캐닝되는

이들의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악보를 만들어내고, 이 음계는 피아노를 통해 자동으로 연주된다. 여기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화음을 더하며, 인간과 자연, 기계가 함께 빚어내는 즉흥 선율과 작품 형태가 지나가는 관람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노들서가를 찾은 시민은 그저 가만히 앉아 이런 우연의 순간이 빚어내는 음악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기계즉흥곡>은 11월까지 노들서가에서 시민과 마주할 예정이다.

모퉁이에서 피어나는 특별한 일상
높은 천장과 통창이 주는 개방감 속에서 여유를 즐기다보면, 시선이 자연스레 공간의 모퉁이로 향한다.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이곳에 조성한 '아트

← '아트스페이스 엣지'에서 열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상설전시

스페이스_엣지'는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다. '에지edge'(모퉁이)가 '에지 있는'(특별한) 공간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곳은, 뽀뽀한 도시를 벗어나 한강 한가운데서 우연히 마주하는 예술적 순간을 만들어낸다.

서울문화재단의 시각예술 창작공간 세 곳(금천예술공장·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신당창작아케이드)의 전·현직 입주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이곳은, 높은 문턱의 갤러리를 벗어나 시민의 일상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뛰어난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작가에게는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기회를, 시민에게는 예상치 못한 예술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곳 노들서가에서 우연히 마주한 예술이 하루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만든다면, 그 순간은 이미 우리의 일상속 특별한순간이 돼줄 것이다.

또 한번 세계로 도약하는 예술섬
한편, 노들섬은 지난해 진행된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지명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토머스 헤더윅의 작품 '소리풍경Soundscape'을 바탕으로 또 한번의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노들섬을 글로벌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시민 여가와 일상의 회복섬, 한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노들섬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자, 지금의 노들섬을 충분히 즐겨야 하는 이유다. 노들섬의 하단부(한강 변) 공사는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며, 상단부(복합 문화시설) 공사는 2026년 이후 예정돼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하단부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노들섬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오솔길 공간 등을 즐길 수 있다. 끊임없는 변화를 앞둔 오늘의 노들섬을 놓치지 말자.

노들섬 운영 사항과 프로그램에 관한 공지 등은 노들섬 누리집(nodeul.org)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nodeul_island) 등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기타 문의 사항은 노들섬 대표 전화(02.749.4500)로 연락하면 된다.

ARTS SOUL AREA FIELD

- 예술가의 진심
- 김재엽의 연극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 예술인 아카이브
- 마키토이
- 위혜승
- 페이퍼로그
- 재무회계팀 김지연
- 인사이드
- 피아노서울
- 제3회 서울예술상
- 트렌드
- K-팝과 클래식 음악의 협업
- 해와는 지금
- 트럼프 2.0 시대, 문화예술의 방향은



김재엽의 연극이

올 초 연극계 최고의 흥행작은 <세일즈맨의 죽음>이다. 두 달간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객석을 꽉꽉 채우며 공연한 뒤 전국 15개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펼치고 있다. 현대 연극의 고전답게 종종 무대에 오르는 이 작품이 이번에 인기를 끈 데는 배우들의 연기를 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연기 경력 60년을 넘긴 박근형·손숙과 50년 차를 바라보는 예수정·손병호가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몰락하는 늙은 부부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

우리 사회에

그런데, 연극 팬이라면 이 작품의 연출가 이름을 보고 조금은 뜻밖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사회성 짙은 다큐멘터리 연극으로 잘 알려진 극작가 겸 연출가 김재엽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끄는 연극 집단 '드림플레이 테제21'은 다큐멘터리성, 동시대성, 테제(정치·사회적 운동의 기본 방침이 되는 강령)가 선행하는 작품을 추구하기로 유명하다. 게다가 중견 연출가인 그가 2023년 이미 공연된 프로덕션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맡는 것도 다소 낯설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신에겐 민간 제작사의 연극 프로덕션을 처음 경험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던 모양이다.

던지는 메시지

“무엇보다 민간 제작사의 프로덕션 작업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어요.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은 평소 좋아하는 작품인데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뤄서 해석이나 관점은 이미 준비돼 있었죠. 우선 말맛을 살려 번역을 다시 한 뒤 바뀐 극장에 맞춰 예전 무대 세트를 일부 활용하고 동선을 바꾸는 등 ‘경제적으로’ 손봤습니다. 대신 음악은 완전히 새롭게 써서 차별성을 뒀습니다.”

민간 제작사와의 첫 작업인 <세일즈맨의 죽음>은 그에게 좋은 흥행 성적을 안겨준 동시에 유익한 경험이 됐다. 극단이나 공공극장과 다른 제작 환경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극단 작업은 출연 배우가 대체로 일정한 데다 연극에 대한 동일한 관점을 토대로 합니다. 반면 <세일즈맨의 죽음>만 보더라도 (민간 제작사의 연극은) 원로 선생님들부터 젊은 친구들까지 다양한 세대의 배우가 각기 다른 연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이번엔 연극에 대해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진 배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재밌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연출을 겸하는 작가이다보니 극단 작업에선 대본을 계속 손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좋은 대본이 이미 주어진 만큼 연출에 더 신경 쓸 수 있었죠”라면서, “극단에선 (제가) 제작자 입장을 겸하다보니 예산 고민으로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번엔 제작사에 기획팀이나 프로덕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연출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일즈맨의 죽음> 연출은 2002년 프로 무대에 연출가로 데뷔한 후 연극의 소재와 창작 방식 등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온 김재업이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는 신호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국내 공연계에서 다큐멘터리 연극을 주도한 그가 요즘 다시 내러티브 연극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우리의 극장, 21세기의 테제를 연구하고 소통하는
김재업은 1998년 ‘아홉 개의 모래시계’로 한국연극협회 창작극 공모에 입선하고 2002년 ‘페르소나’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극작가로 출발했다. 배우 겸 연출가인 고효박광정의 극단 파크 창단 멤버로 합류한 그는 2002년 창단 작품인 블랙코미디 <개그맨과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작품으로 부조리극 작가 이오네스코의 ‘왕은 죽어간다’를 재창작한 <체크메이트>의 대본을 썼다. <체크메이트>2002는 그의 연출 데뷔작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대학로의 극단 시스템에 답답함을 느꼈던 그는 2003년, 학생 시절부터 친숙한 신촌·홍대로 돌아가 인디퍼포머 그룹 ‘드림플레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같은 해 여름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아홉 개의 모래시계>를 시작으로 <상그릴라의 시계공>2003, <서바이벌 캘린더>2004, <유령을 기다리며>2005 등 판타지 넘치는 재기 발랄한 작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그러다가 <햄릿>과 <고도를 기다리며>를 절묘하게 결합한 <유령을 기다리며>가 2005년 거창국제연극제에서 대상과 연출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극단 드림플레이가 정식 창단됐다.

극단을 만들면서 그는 연출가 동인 집단 ‘해화동1번지’ 4기 동인으로 대학로에 돌아왔다. 그리고 2006년 해화동1번지 4기 동인의

첫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오늘의 책은 어디로 갔을까>로 평단과 대중의 지지를 고루 받았다. 그는 연세대학교 앞 사회과학서점을 모티프로 91학번의 후일담을 그린 이 작품에서부터 자신이 고민하는 현실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후 연출가로 <조선형사 홍윤식>2007, <꿈의 연극>2009, <마호르바>2011, <풍찬노숙>2012 등을 선보이는 한편, 극작과 연출을 겸한 <누가 대한민국 20대를 구원할 것인가>2008, <타인의 고통>2010, <여기 사람이 있다>2011 등도 무대에 올렸다. 그가 직접 쓴 작품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20대의 분노를 담거나 2009년 발생한 웅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다뤘다. 이때 동시대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내러티브 중심의 기존 글쓰기에서 한계를 느낀 그는 새로운 형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년간의 고민 끝에 나온 작품이 2013년 국립극단에서 선보인 뒤 그에게 수많은 상을 안겨준 다큐멘터리 연극 <알리바이 연대기>다. 이 작품은 자신의 가족사와 맞물린 한국 현대사의 순간들을 조명함으로써 국가 권력이 소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준다. 이와 함께 그는 극단 드림플레이에서 ‘극단’을 빼고 ‘테제21’을 추가한 ‘드림플레이 테제21’로 이름을 변경한다. ‘연극이 아니어도 좋은 연극’은 드림플레이

↓ 대학로극장 퀘드 제작 <베를리너> 남독공연 ©대학로극장 퀘드·이강률



테제21의 모토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의 극장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동시대의 테제를 연구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의 현장입니다. 연극은 연극으로 남아 있기를 고집할 게 아니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동시대에 증명해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죠. 어쩌면 이제 연극은 스스로 연극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알리바이 연대기>를 시작으로 2014년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2017년 <생각은 자유>,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등까지 극 중 인물로 ‘재업’이 등장하는 자기 서사 다큐멘터리 연극을 잇달아 선보였다. 재업 역은 그동안 배우 정원조가 맡았다. 김재업은 2015년 독일 베를린예술대학 방문교수 시절 현지 극장에서 연극이 화두가 되고, 극장이 토론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한 후 한국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다큐멘터리 연극을 한층 다양하게 시도했다. 세월호와 그 이후를 이야기한 <국가 없는 나라: 사라진 기억들>2016, 블랙리스트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2016과 <검열언어의 정치학 시즌2: 김똥뜰의 비망록>2017, 단원들이 겪은 노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자본주의에 대해 다룬 <자본1: We Are The 99%>2018와 <자본2: 어디에나 어디에도>2021, 그리고 <자본3: 플랫폼과 데이터>2024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작품의 경우 김재업과 함께 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원들의 기여를 빼놓을 수 없다.

최근작인 ‘자본’ 시리즈에서 드림플레이 테제21의 배우들은 극 중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정치적인 내용 말고, 좀 연극다운 연극도 하고 싶다’, ‘드라마틱한 연극을 해 봤으면 좋겠다’ 등의 대사를 거침없이 말했다. 김재업의 탈드라마적인 연극에 친숙한 관객에게 웃음을 자아낸 그 장면은, 돌이켜보면 연극 형식의 변화를 바라는 단원들의 속내였다. 드림플레이 테제21은 2021년부터 매년 단원들이 창작 워크숍을 통해 완성한 연극을 선보이는 ‘두드림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연극 공동체의 꿈을 지켜가며 다양한 연극을 소개하는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재업도 지난해 극단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조선 의용군 최후의 분대장이자 중국 조선족 무단의 거목인 고효 박학철의 삶을 그린 <최후의 분대장-





← 대학로극장 퀴드 제작 <베를리너> 낭독회 ©대학로극장 퀴드 이강철

제부 조선의용군>에서 다큐멘터리적이지만 내러티브가 강한 역사극을 보여줌으로써 단원들과 함께 변화에 나선 모습이다.

“다큐멘터리 연극을 통해 기록권 기성세대에게 대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나이를 먹고 주류에 포함된 제가 이전처럼 작업하면 ‘비판적인 약자’ 행세를 한다고 욕먹을 거 같아요. 이제 완성도 있는 보편적 이야기를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번에 연출한 <세일즈맨의 죽음>이 1949년 초연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공연되는 것은 현대인이라면 공감할 문제를 다뤄 보편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연극의 경우 직접적이고 강렬하지만 수용 범위가 넓지 않은 데 비해, 소위 ‘고전’처럼 내러티브가 강하고 인간의 보편적 본성을 담은 연극은 수용 범위가 넓다.

동시대성과 현대성을 목도하며

그는 “젊었을 때는 나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고 연출하는 창작극이 더 재밌었죠. 고전 희곡의 경우 나만의 색깔로 연출하기엔 삶의 경험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중년이 된 그는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작품은 작가의 글이 가진 힘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외 고전 희곡을 무대에 올릴 때 번역극 느낌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언어에 천착하게” 된다면서, “물론 (현대 희곡과 달리) 셰익스피어 같은 작품은 연출적으로 재해석하거나 변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무대에 올리는 것 자체가 ‘왜 지금 공연하지?’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이미 현대성을 갖는 것 같아요. 최근 국내 무대에서 <맥베스>와 <햄릿>을 많이 공연하는 것도 사람들이 운명과 권력 앞에서 헤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가을부터 1년간 안식년을 얻어 셰익스피어를 비롯해 수많은 극작가를 배출한 영국 런던에 머무른다. 런던은 세계 연극의 중심지답게 완성도 높은 연극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10년 전 그가 독일에서 1년간 체류하며 다큐멘터리 연극 방법론을 심화했다면, 이번엔 영국에서 웰메이드 연극을 만드는 비밀을 가지고 올 것 같다. 그는 향후 계획으로 “고향인 대구를 배경으로 영상섭의 ‘삼대’처럼 3대에 걸친 가족사를 다룬 희곡을 쓰고 싶습니다. 과거의 진보적이던 도시 대구가 지금은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바뀌었는지 그 내력을 드라마로 담아내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영국으로 떠나기 전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연출하는 연극은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대학로극장 퀴드에서 막을 올리는 이실론 작 <베를리너>다. 극작가 이실론은 희곡을 쓴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으로, 2023년 4월 1인극으로 공연된 <마하>를 발표하 바 있다. 2023년 서울문화재단이 신설한 서울희곡상 제1회 수상작인 ‘베를리너’는 내전으로 인해 봉쇄된 공항 안에서 캐리어를 기다리는 우희와 태조, 그리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난민 잉그리드와 클라우스의 이야기가 교차하며 진행된다.

개관 3년 차인 대학로극장 퀴드는 올해 서울희곡상 제1·2회 수상작을 무대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첫 작품인 <베를리너>가 독일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주는 다채로운 감각과 함께 우리가 수많은 전쟁과 분쟁, 테러를 목도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김재업에게 연출을 의뢰했다. 독일 거주 경험에,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작품을 선보인 적 있는 그가 ‘베를리너’를 퀴드 무대에 구현할 적임자라고 봤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김재업은 대본을 받고 나서 극작가 이실론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이실론 씨는 우리 극단의 공연을 자주 보러 오는 관객이기도 한데요. 언젠가 자신의 희곡을 한번 읽어달라는 메일을 보냈는데, 마침 학기 말이라 바빠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답장한 기억이 납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이실론 씨의 서울희곡상 당선 소식을 듣게 됐죠. 당선작이 바로 제게 메일로 이야기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가 그 작품의 연출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를리너’는 수상작 발표 당시 심사평에서 경계에 대한 다각적 탐색을 정교하게 세팅한 작가의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다만 작가의 무대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성이나 짜임새가 연극 대본보다 영화 시나리오 같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에 김재업은 드라마터그로 참여한 극작가 김은성과 함께 이실론의 작품을 무대화하기 위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연극 대본으로서 짜임새와 완성도를 높였다. 그는 “서울희곡상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의 낭독공연에도 참여하며 모니터를 진행했습니다. 출연 배우들 역시 작품에 관한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죠. ‘베를리너’를 시작으로 앞으로 동시대적 주제와 담론을 담은 참신한 희곡이 퀴드의 창작극 제작 시스템을 통해 관객에게 계속 다가가길 바랍니다”라고 기대했다.

연극 <베를리너>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대학로극장 퀴드

마키토이

시각예술/일러스트레이션

@makitoy

cargocollective.com/makitoy

2023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워크숍 'Everyday Drawing Club'

2025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워크숍 '종이로 그리는 달력'

↓ 작업 테이블 ©makitoy



“ 식물과 사물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데일리 드로잉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마키토이입니다. 2019년 여름부터 그림 그리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365일 드로잉을 시작했고, 이를 개인 프로젝트로 삼아 지금까지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를 오리는 작업을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루하루 쌓여가는 그림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가꾸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이 천천히 자라고 형태를 변화시키며 성장하듯, 저도 작업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정원을 가꾸는 마음으로, 매일 작업을 소중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



↑ 작업 노트 ©makitoy

“ 어린 때부터 노트에 낙서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는 일은 자연스럽게 익숙한 습관이었고, 혼자만의 놀이이자 표현 방식이었어요. 이것을 본격적인 직업으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한 건 대학 졸업 후였습니다. 누구나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고, 때로는 지치거나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 과정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해나가려면, 결국에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힘들 때마다 그만두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고 싶고, 계속해서 해 보고 싶어지는 일이라면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창작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맞았다고 느낄 때마다 더 열심히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

“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예술가 혹은 작가라면, 저는 개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부터 비로소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작업의 시작점은 대부분 타인의 요청에서 비롯한 것이었어요. '작가'라는 호칭이 따라왔지만, 그 말이 어딘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곤 했어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던 탓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제마음의 요청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창작을 하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실감했어요. 그때부터 '작가'라는 말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

“ 제 대표 작품은 2022년에 진행한 365일 프로젝트 <페이퍼 가든 PAPER GARDEN>입니다. ”

↓ <페이퍼 가든> 패턴, 2022 ©makitoy

저는 2020년부터 매일 그림을 그리는 챌린지 작업을 1년 단위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쌓여가는 작업이 결국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긴 호흡을 가진 프로젝트로 확장되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반복 작업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마다 작업 방식에 변화를 주며 새로운 시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연필이나 펜을 이용해 드로잉을 했지만, 2022년에는 종이와 가위를 활용해 매일 하나의 식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이어진 작업이 글과 함께 엮여 『매일 나를 가꾸고 돌보는 그림』이라는 책으로 지난해 출간됐어요. 올해는 데일리 드로잉으로 오래된 사물의 형태와 매력을 탐구하고 있고, 동시에 사물과 패턴을 연결하는 새로운 작업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관찰하며 그리는 과정에서 얻은 조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래픽과 오브제로써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있어요. ”



“ 그림을 그리고 싶게 하는 원동력을 떠올려보면, 최근에는 자연 속 식물이나 사물의 색과 모양 같은 시각적 요소에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뭇잎의 색감이나 예상치 못한 꽃과 풀의 조합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고, 그림으로 옮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연에서 발견한 색 조합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고 신비롭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도 영감을 받곤 합니다. 시나 소설 같은 글, 음악처럼 형태가 없는 것도 제게는 중요한 창작의 원천입니다. 때로는 한 문장에서 강한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어떤 음악을 듣다 보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떠오른 감각과 장면이 다시 작업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

“ 2024년 말에 다녀온 죽공예품 전시가 인상 깊었습니다. 정교하게 엮이고 다듬어진 공예품 자체도 아름답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완성된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의 작업 테이블과 도구,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대나무 재료까지 함께 전시됐습니다. 단순히 결과물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과 시간의 흐름까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정갈하게 정리된 작업 도구와 손때 묻은 재료들, 그리고 수없이 쪼개지고 다듬어졌을 대나무 조각들을 보며,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노력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새삼스레 느낀 것은, 때로는 최종 결과물보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성실한 과정 자체가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인의 손을 거쳐 천천히 쌓인 시간과 반복된 노동, 끊임없는 고민과 실험이 결국 하나의 예술이 된다는 사실 말이죠. ”

“ 앞으로는 식물 패턴을 사물과 조합해 그 패턴이 단순히 평면적인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그래픽에서 오브제로 확장되는 작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식물의 자연스러운 형태와 사물의 독특한 특성을 결합해 시각적으로 더 입체적이고 풍성한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

위혜승

시각예술/회화
b.2000
@weh_sn.work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5기 입주작가

안녕하세요, 2025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5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회화 작가 위혜승입니다. 저는 지금 신체와 피부에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 불분명한 자아의 경계를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사건의 흔적으로서 피부에 남겨진 '흉터'에 집중해 화면에 제2의 피부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운 것은 중학생 때 선생님의 권유로 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시작하면서부터였고, 그 후 미술대학을 졸업해 미술대학원에 진학하기까지 계속해서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스스로 예술가라고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작업하는 사람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면, 일상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휴대전화에 메모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생각일지라도 그 메모들이 작업에 살을 붙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원도우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껍질 1>, <껍질 2>와 <균열>이라는 작품이 제 대표작입니다. 세 작품은 모두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요즘 제 신체에서



보이는 개인적 특성과 사적인 흔적(흉터)을 작업 소재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체의 '보여지는 영역'과 '보여지지 않는 영역'으로 분류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세 작품은 모두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 속하면서도 제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인지하는 나'와 '타인이 인식하는 나' 사이의 괴리감에 대해 고민해왔고, 그런 부분이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업 과정에서 돌가루를 쌓아 올리는 기초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돌가루와 아교(접착제)를 혼합해 쌓고, 갈아내고,

↑ <껍질 2>, 2024, 한지에 혼합재료, 90.8×71.7cm

다시 쌓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하며 두께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태초의 어린 피부가 시간을 거쳐 성장하고 점차 두터워지는 과정을 작품 안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작품이 4월 27일까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원도우갤러리에서 전시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작에 대한 영감은 평소의 잡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4년 전부터 휴대전화 메모장이나 공책에 생각을 무질서하게 적어놓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을 휘갈기듯 무언가를 적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제가 몇 년 동안이나 고질적으로 고민해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평소 작업실을 오고 가는 길에 책을 읽는데, 관심 분야에 대한 논문이나 책이 제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서브스텐스>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젊고 완벽한 신체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 더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혐오와 젊고 아름다운 몸을 향한 욕망 사이에서 점차 망가져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처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제 작업은 '보여지는 영역',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라는 분류로 작업을 전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제 오랜 고민과 영화의 메시지 사이에 공감되는 지점이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 <손들>, 2024, 한지에 혼합재료, 23.5×33.4cm



↓ <피막>, 2024, 한지에 혼합재료, 38.2×46cm

↑ <균열>, 2024, 한지에 혼합재료, 91×61cm

지금까지는 한지 위에 돌가루를 쌓아 두께감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한지 이외에 천을 사용하거나 또는 조형적인 작업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재료적 탐구에 흥미가 생겨서 다른 실험적인 작업을 큰 규모로 제작해볼 계획입니다.

재무회계팀 김지연 예술과 숫자가 어우러지면

6년 차 재무회계팀 김지연 대리는 2020년 3월 재무회계팀에 입사했습니다. '그럼 전공이 경영학이나 세무회계학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보통 수학 전공자들은 교직으로 나가거나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하지만, 저는 취업을 고민할 당시 가르치는 데 재능이 없어 교육자의 역할은 차선으로 두었는데요.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단순합니다. 3학년 2학기 시절, 과선배가 "할 거 없으면 이거나 해봐"라며 추천한 교내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회계를 알게 된 시작이었죠. 자신의 흐름이나 회계 처리 방법, 요리조리 맞추면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들이 재밌었어요. 그렇게 큰 고민 없이 졸업 후 첫 회사로 IT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1년 9개월간 일하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게 맞을까?', '이 일을 해서 내게 남는 게 뭘까?'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길고 긴 인생, 로봇처럼 단순히 급여라는 대가를 바라며 업무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의 끝은 퇴사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퇴사 후 궁금하던 업계에 도전했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살던 지역 문화재단에서 두 달간 열린 기획전시의 스태프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전시실이나 공연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했는데, 그때 백스테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관객과 무대를 '잇는'

김지연 대리의 하루, 한 달, 일 년
매일 결산을 위한 기초 작업이랄까요. 지출·수입 결의를 매일 확인합니다. 결제 완료된 결의서를 전포 처리(회계 처리)하고, 유형에 따라 무통장입금으로 자금을 집행합니다.
매월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를 신고하고, 계좌 잔액과 카드 대금 등을 관리합니다.
매분기 분기 결산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재단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를 진행하며, 총 1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매년 결산은 1년 동안 서울문화재단에서 돈이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 쓰였는지 맞추고,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가 작성되고, 법인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수시 이외에도 보통재산·기본재산 자금 운용, 공익법인 계좌 신고, 해외 송금, 재산세·부동산세 납부 등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저는 현재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 업무와 인건비성 경비 지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하고 싶었어요. 문화예술은 일상에도 깃들어 있지만, 또 삶을 환기해주기도 합니다. 그때 아트센터에 방문한 관람객들의 즐거움에 일조하고 싶었어요. 회계 직무로 함께해보자는 생각을 시작으로 온 종계 경기문화재단에 입사해 1년간 근무했고, 이후 동일 선상에서 서울문화재단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다채로운 서울의 문화예술에 끌렸던 것 같아요. 축제·전시·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는 곳이니깐요. 전 직장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관객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경험이 제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큰 동기가 됐어요. 그렇게 조금씩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커졌고, 서울문화재단이 펼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보며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 주기만큼이나 정기적인 업무 재무회계팀은 회계와 계약 파트로 나뉩니다. 제가 담당하는 회계 파트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어요. '회계의 꽃'으로도 불리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결산'입니다. 결산 후에는 작성된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맞춰 잘 작성됐는지 독립된 회계 전문가에게 외부 감사를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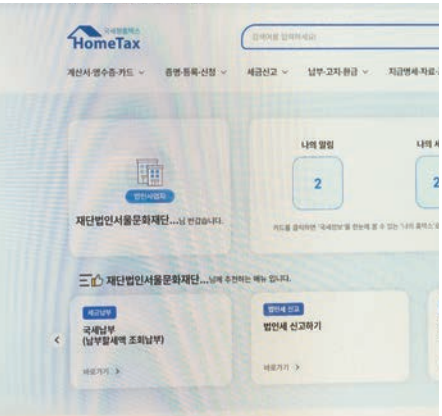
일반 회사와 다른 문화재단의 특징이라면 문화예술 분야의 여러 곳에서 근무한 건 아니기에 서울문화재단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출 가운데 지원금이 많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일반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보통 비용 발생에 대응하는 수익이 있지만, 재단은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원금'이라는 비용에 대한 수익이 없어요. 물론 회계적 관점에서요! 그리고 해외 작가를 초청해 공연하거나 국제 교류 사업이 활발하다보니 해외송금이 적지 않는데, 이때 조세 조약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또 용역마다 서울과 원천징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단의 경우 해외송금 건수가 상당한데요. 송금 통화는 원화인데, 수취 통화는 다양하다보니 때마다 은행을 찾아 은행원과 머리를 맞대고 환율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저희가 서류를 들고 나타나면 시작을 감지하고 팔부터 걷어 올리신답니다.(웃음)

누구보다 친절한, 직원들의 회계 일타감사 저는 신입 직원과 부서별 회계 교육 또한 담당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부분이 숫자가 친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회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회계 영역을 '불호'한다면 정말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쉬운 설명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꼼꼼해야 하는 영역이니만큼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하니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독려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계산은 ERP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해요. 일상에 빚대는 거죠. 예를 들면 "회계는 회사에서 가계부를 적는 과정이에요" 하는 식으로요. 재단은 ER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결의서를 작성해 결재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서, 실제 화면을 직접 보면서 설명하는 등 예시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퀴즈를 내기도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호응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실무에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덧붙이는 말이었어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재무회계팀 업무별 담당자에게 전화주세요."

다른 업무를 맡을 기회가 있다면 사업 부서에서 회계팀으로 오거나 회계팀에서 사업 부서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저도 사업 부서로 경험해보고 싶기는 해요. 결의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기에 실제로 사업을



경험해보면 재무회계팀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현장으로 나가면 좀 더 활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콧 집어서 어떤 부서를 선호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해보고 싶어요. 축제나 행사, 공연, 예술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의 장을 만들다 보면 견문도 넓어지고, 또 그걸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좀 더 일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문화예술과 회계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잘 와닿지 않는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만약 문화예술은 어렵고,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문화예술은 엄청나게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퇴근길 버스킹, 한강에서 치맥 할 때 보이는 피아노, 날씨 좋은 주말에 펼쳐지는 노래자랑 무대 등... 모든 게 문화예술이니까요. 작가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 활동이니까요! 그렇게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혼자만의 감상으로 남겨둔다거나 함께한 이들과 나눠본다면, 분명 일상에서의 감성과 사고도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에 문화예술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되는 특별한 하루 피아노 서울

특별한 하루는 사소한 계기로 만들어진다. 서울문화재단은 시민이 어제와 다른 특별한 오늘을 만들 수 있도록 문화시설, 공원, 변화가 등 일상 공간에 거리피아노를 운영하는 '피아노 서울' 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이어나가고 있다.

2025년 4월까지 서울에 13대의 거리피아노가 설치돼 생활 영역 곳곳에 자리잡았고, 세 가지 큰 범주로 나뉜 각각의 장소에서 '피아노 서울'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재단 운영 공간인 ①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② 노들섬 ③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④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 피아노가 설치됐고, 한강 변과 시내 주요 공원인 ⑥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⑥ 서울어린이대공원 ⑦ 서울숲 ⑧ 보라매공원 ⑨ 서울식물원 ⑩ 뚝섬한강공원 ⑪ 반포한강공원에서도 누구나 연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시민들로 북적이는 ⑫ 홍대 앞 레드로드 ⑬ 지하철 복사평역에도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올해 동북·동남권에 각각 한 대씩 피아노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서울 5개 권역 전체에 '피아노 서울'이 조성된다. 거리피아노를 가볍고 담백하게 스쳐 지나가는 재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평범한 일상에 감칠맛을 더하는 조미료 역할을 한다. 거리피아노를 만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남긴 수많은 영상이 그러한 감동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어린 자녀의 '젓가락 행진곡'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어머니, 친구의 소나티네 연주를 신기해하며 연신 사진을 찍는 학생들, 이름 모를 누군가의 즉흥 연주를 들으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는 행인들... 거리피아노를 둘러싼 모습이 저마다 다르지만, 그 순간에 몰입하는 표정만큼은 모두 닮아 있다.

혹자는 소셜미디어로 극대화된 현대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로 '보여주기식 삶'을 위한 피로감을 꼽는다. 하지만 '피아노 서울'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와 정반대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어제와 다를 것 없던 평범한 하루가 거리피아노라는 작은 순간으로 인해 특별한 하루로 변하는 벽찬 감동. 그것이 바로 '피아노 서울'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지난해부터 '피아노 서울'을 본격 운영하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거리피아노를 활용한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뚝섬한강공원·보라매공원·서울어린이대공원·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등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밀접하게 다가간 것이다. 특히 청계천에서 진행한 피아노 연주 이벤트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는 행사나 공연을 잠시 뒤로 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려 한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손끝에 담아, 투박하지만 진솔한 이야기를 품은 음악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행인이 거리피아노를 연주하며 무대의 주인공이 되듯, 우리가 모두 삶의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자 한다.

거리 위의 피아노는 공간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써 단순한 악기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업라이트 피아노의 크기는 고작 가로 1.5m, 세로 0.5m 남짓. 설치 면적은 1m²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아노에 앉아 연주하는 시민이 등장하는 순간, 주변 행인은 관객이 되고 평범한 거리 풍경은 공연장으로 변모한다. 단 한 대의 거리피아노가 일상의 배경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허브가 되는 것이다. 연주하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피아노가 없었다면 무심코 지나쳤을 작은 공간. 하지만 피아노 하나가 놓이는 순간 그곳은 특별한 기억을 자아내는 장소가 된다.

복사평역 대합실에 설치한 피아노는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매개가 되고 있다. 낮은 공중 전화기와 투척용 소화액만 설치돼 있던 공간이 '피아노 서울'을 통해 명소로 거듭난 것. 복사평역 1·2번 출구로 연결되는 통로는 이태원이나 해방촌으로 향하는 외국인과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어둡던 조명 아래 공간이 이국적인 문화 공간으로 바뀌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심지어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가 주목하는 공간이 됐다. 거리피아노가 개인의 연주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다.

'피아노 서울'은 현대 문화계를 지배하는 큰 흐름인 '속도'나 '자극'과는 거리가 멀다. 화려하지 않고, 그다지 참신한 아이디어도 아니며, 단숨에 주목받기도 어렵다. 그렇기에 더더욱 평범함을 지향하고자 한다. 당신의 일상 공간에서 거리피아노를 발견한다면 조심스레 건반을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상의 작은 변화는 그렇게 시작된다.



시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2024년 대표작은? 제3회 서울예술상

2024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작과 그밖에 서울에서 발표된 예술작품 중 서울시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순수예술분야 우수 예술작품을 선정하는 제3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이 3월 19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렸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서울예술상은, 매년 10 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재단의 대표 사업인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심사 등 추가 검증 과정을

거쳐 우수 작품을 엄선하는 시상 제도다. 최우수상 6팀, 포르쉐 프린티어상 6팀, 심사위원 특별상 작품부문 4개 작품과 장애훈예인 부문 1명에 총상금 1억 8천만 원을 수여했다.

올해 시상식에서 대상은 연극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극단 적 <몰타의 유대인>에게 돌아갔다. “깊은 연출적 고민과 주연배우의 흡인력 있는 연기력이 돋보인 작품”이라며, “관객과 연극 전문가의 지지를 동시에 얻어내며 서구 고전의



성공적인 현대화를 보여준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이라는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최우수상에는 극단 적 <몰타의 유대인>(연극), 리케이댄스 <올더윌즈>(무용), <김도현 피아노 리사이틀 슈만 Schumann 1810-1856>(음악), <김효영의 생황 ‘오굿×Resurrection’>(전통), 나현 <봉래산-포모사 프로젝트>(시각), 밸런싱 밸런스드 <서커스 이펙트>(다원)이 선정됐으며, 각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포르쉐 프린티어상에는 트렁크씨어터프로젝트 <쿠키, 앤, 크림>(연극), 우보만리 <서양극장 속 한옥>(무용), 아벨 가르텟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 1&2>(음악), <타악기 콘서트 ‘김인수의 장단소리: 정면 叩’>(전통), 고요순 <결>(시각), 송세진 <노화된 기술>(다원)이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상금으로 각 1천만 원이 주어졌다.

심사위원 특별상 작품 부문에는 공놀이클럽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연극), <테너 김효중 독창회>(음악), 박세연 <가야금의 무땀감각화>(전통), 이은주 <서울 오후 3시>(시각)가 선정됐다. 심사위원 특별상 장애훈예인 부문 수상자는 극단 애인 대표

김지수였다. 심사위원 특별상에는 각 500만 원이 수여됐다.

대상 수상작 <몰타의 유대인> 마정화 극단 적 대표 인터뷰

제3회 서울예술상 대상을 축하드립니다. 현장에서 발표된 결과라 기쁨이 더했을 것 같은데, 우선 수상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부한 이야기겠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상 수상작을 발표하던 순간 저희는 시상자들의 이야기를 흘러들으며 누가 수상자가 될지 예상해보고 있었는데, “극단 적”이라고 이름이 불렸을 때 약간 고장 난 듯 서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수상 소감도 형식수설했는데, 지면을 빌려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몰타의 유대인>은 극단 적에서 고전을 다루기 시작할 때부터 ‘언젠가는 해아지’ 생각해온 극입니다. 이곤 연출과 종종 ‘언젠가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공연할 수 있게 돼 최선을 다해 작품을 만들었고, 이렇게 대상까지 타게 되니 극단 적의 고전 작업 전체가 상을 받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어 무척이나 기쁩니다. 이번 작품을 함께 해준 배우와 스태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 대상을 수상한 극단적 <몰타의 유대인>

극단적은 한 걸음 더 올라가보려 합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상 받으러 돌아오고 싶습니다.

상금 2천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연극 부문 최우수상 상금도 함께 주는 줄 알고 신나서 잠깐이나마 재공연을 생각했는데요. (웃음) 2천만 원은 재공연을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소중한 상금이므로 저희 구성원과 신중하게 의논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극단적은 어떻게 창립하게 됐나요?
독자들에게 단체를 소개해주세요. 200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졸업생을 중심으로 창단한 극단입니다. 2007년 이후 여러 사정으로 활동이 중단됐다가 2011년 재창단했고, 2014년 저와 이곤 연출이 <피디 미어스 Fuddy Meers>를 공연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시작했습니다. <단편소설집>, <네더>, <4분 12초>, <스켈레톤 크루> 등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동시대 해외 작품을 한국 연극계에 소개해왔고, 2018년부터 또 다른 트랙으로 르네상스 시기의 고전 작품을 공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전을 통해 현재의 한국을 바라본다는 취지로 차근차근 '지금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작품을 골라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수상작인 <몰타의 유대인>은 무려 셰익스피어보다 앞선, 르네상스 시기 고전입니다. 크리스토퍼 말로 Christopher Marlowe의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크리스토퍼 말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지금은 잘 공연되지 않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유명한 작가이기도 했고요. 이곤 연출과 오래전부터 언젠가 말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자고 이야기하면서, <몰타의 유대인>을 공연할 생각으로 이리저리 계획을 짜보곤 했습니다. 말로의 여섯 작품은 공통으로 그 사회의 비주류에 속하는 주인공이 자신의 야망으로 사회 규범적 질서를 깨면서 결국 파멸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몰타의 유대인>은 자본에 대한 욕망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겹쳐 있는 작품이라, 21세기 한국에서 극단적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드러내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공연을 위한



'지금의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아주 세심하게 각색했습니다. 불필요한 혐오 표현과 차별적인 표현을 전부 걷어내고 압축했어요. 구조를 그대로 두고 뼈를 발라내듯 대사를 자르고, 결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작의 결말에 나오는 기독교인의 승리가 아니라 자본과 탐욕으로 황폐해진 세상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우들과 같이 원작을 읽고 토론하면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그다음으로 각색 대본을 두고 여러 번 논의한 끝에 결론을 바꿨습니다. 이후 자본주의가 가장 번성했고 미래에 대한 야심으로 가득 찼던 1980년대 이미지를 배경 삼아 의상과 음악을 골랐습니다. 그 안에서 무대와 조명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파티라는 개념으로 이미지를 형상화했고요. 연출과의 오랜 작업을 통한 신뢰, 배우들에 대한 믿음과 제작진의 역량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해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이 작품을 통해 우리 시대의 관객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초기 근대 서구의 확장과 주변부 인물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야심과 그로 인한 파멸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여러모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와닿는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세기에 걸친 발전으로 인한 환경 위기, 서로에 대한 혐오와

탐욕으로 더욱 커지는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지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파멸하지 말고, 서로 살아남자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몰타의 유대인>은 극적으로만 아니라 무용·음악·미술 등 여러 장르의 조화가 훌륭하다는 평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연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모든 예술이 그러하겠지만 연극은 장르 특성상 좀 더 시대적 호흡과 연결돼 있습니다. 현재 또는 지금을 단면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바라보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용만 아니라 형식 면에서도 그러해야겠죠.

이를 위해서 극단적은 '무엇을 공연하는지'와 더불어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 형식에 대한 고민도 깊습니다. 질문처럼, 왜 그이야기가 그러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게 지금의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장르와의 조화가 훌륭하다는 평가는 정영(무대)·성미림(조명)·이승호(음악)·고혜영(의상)·김근영(분장) 등 각 파트 디자이너의 공이 큼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작업해오면서 극단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작품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함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최정선 액팅 코치, 이두성 마임리스트 두 분이 배우들의 액팅과 움직임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고전을 동시대에 공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극단적에서 고전을 무대에 올릴 때면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전을 통해 지금 여기를 읽는다.' 저희는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고 싶어 고전을 선택하고, 번역하고, 연습하고, 공연합니다. 동시대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저 서구의 오래된 이야기를 반복하는 셈이니 의의가 없지요. 그래서 극단적의 고전 작업은 우리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이야기를 선택하고 새롭게 번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현재의 많은 이념들이 싹트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기의 작품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파행과 욕망을 들여다보고, 이로써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극단적의 고전을 공연하는 이유입니다.

제3회 서울예술상 수상작

대상·최우수상

연극 | 극단적 <몰타의 유대인>

연출 이곤, 작 크리스토퍼 말로,
번역·각색·드라마터그 김정화, 움직임연출 이두성
2024년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최우수상

무용 | 리케이댄스 <올더월즈>

예술감독·안무·연출 이경은,
글·드라마터그 안경모, 작곡 이태원
2024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학로극장 쿼드



음악 | <김도현 피아노 리사이틀 슈만Schumann 1810-1856>

피아노 김도현
2024년 9월 13일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전통 | <김효영의 생황 '오곳×Resurrection'>

예술감독·생황 김효영
2024년 9월 22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시각 | 나현 <봉래산-포모사 프로젝트>

작가 나현
2024년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씨알콜렉티브



다원 | 밸런싱 밸런스드 <서커스이펙트>

기획·운영 밸런싱 밸런스드(김지연·손욱주)
2024년 12월 10일부터 22일까지 낙원상가 d/p



포르쉐 프런티어상

연극 | 트렁크씨어터프로젝트 <쿠키, 앤, 크림>

작·연출 조예은, 드라마터그 허신혜,
조연출 배규진
2024년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무용 | 우보만리 <서양극장 속 한옥>

안무 조인호
2024년 7월 6일과 7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음악 | 아벨 콰르텟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 1&2>

바이올린 윤은솔·박수현, 비올라 박하문,
첼로 조형준
2024년 9월 6일과 14일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전통 | <타악기 콘서트 '김인수의 장단소리: 정면 正面'>

대고·소리북·장구·꽝과리 김인수, 연출 이인보
2024년 5월 26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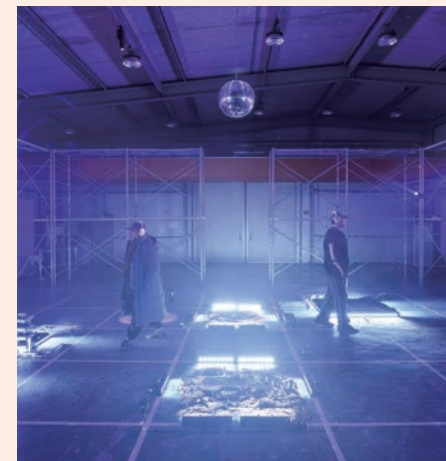
시각 | 고요손 <결>

작가 고요손
2024년 8월 4일부터 30일까지 김세중미술관



다원 | 송세진 <노화된 기술>

작가 송세진
2024년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금천예술공장 창고동



심사위원 특별상

작품 부문 연극 | 공놀이클럽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

연출 강훈구, 작가 서동민
2024년 8월 2일부터 11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작품 부문 음악 | <테너 김효종 독창회>

테너 김효종, 피아노 토마스 레포레(Tommaso Lepore)
2024년 3월 8일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작품 부문 전통 | 박세연 <가야금의 무땀감각화>

25현금·산조가야금·철가야금·꽝과리 박세연,
아쟁 이화연, 장구·징 김인수
2024년 12월 10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작품 부문 시각 | 이은주

<서울 오후 3시>
기획 이은주, 작가 강석호·김수영·노충현·박주욱·박진아·서동욱·이광호·이문주·이제
2024년 11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성곡미술관 1관



장애예술인 부문 | 연극인 김지수

극단 애인 대표





이것은 시대적 필연 K-팝과 클래식 음악의 협업

그룹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는 'K-팝계 아침이슬'이다. 작곡의 2030세대는 시위·집회 등에서 촛불 대신 응원봉을 손에 꼭 쥐고, 민중가요가 아닌 K-팝을 부른다. 소녀시대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세계관의 가장 집결지인 '광야'(한자 '曠野'가 아닌 영문 'KWANGYA'로 표기해야 한다)를 박차고 나와 광장에서 현실의 물성을 머금고 있다.

'다시 만난 세계'는 더구나 'K-팝 아이돌 원형질'을 빛낸 SM이 창사 30주년을 맞은 2월 14일, '한국 클래식 음악의 심장'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울려 퍼졌다. K-팝 작곡가 겸 프로듀서 켄지의 가슴 벅찬 멜로디는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을 만난 동시에, 이광일·정지원·최혁렬의 웅장한 편곡과 맞물려 '희망의 찬가'이자 'K-팝의 클래식'이 됐다.

이날 무대는 SM의 클래식&재즈 레이블인 SM 클래식스 Classics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협업한 자리였다. <SM CLASSICS LIVE 2025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이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 공연엔 K-팝의 세련됨과 클래식 음악의 오라가 만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순간들이 수두룩했다. 보컬이 비는 자리에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들어갔다.

강한희·정재민이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편곡한 엑소 '으르렁'이 백미 중 하나였다. "땀땀땀 땀" 네 음으로 이뤄진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의 첫머리 '운명의 동기'가 포르티시모(매우 세게)로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노래하듯 시작하는 이 곡은, 왈츠풍에 실린 '으르렁'의 상징적 요소들을 여러 화성으로 클래식하게 변주하며 흥미로운 변곡점을 빚어냈다.

클래식 음악계 슈퍼스타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임윤찬 열풍 등에 힘입어 국내 클래식 음악 관객층은 상당히 젊은 편이다. 그런데

<SM CLASSICS LIVE 2025 with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객석엔 10·20대가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인터파크 티켓 예매자 기준 10대(4.9%)·20대(41.3%)가 46.2%를 차지했다. 주로 케이스포돔·고척돔을 많이 찾던 이들은 예술의전당 분위기에 낯설어하면서, 이런 장소에서 K-팝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을 신기해했다. 이른바 4대 대형 K-팝 기획사 중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을 대관한 건 SM이 처음이다.

해외에선 일찌감치 메탈리카Metallica·드림시어터 Dream Theater 등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의 결합이 빈번했다. 물론 국내에서도 신해철이 이끈 넥스트, 서태지 등이 클래식 음악과 시너지를 내고자 했다. 하지만 국내 대중음악 신이 K-팝으로 재편한 뒤, 실험보다 익숙한 공식에 매몰되면서 클래식 음악과 특기할 만한 접점을 만들지 못했다.

K-팝의 위상이 국가적으로 높아지고 산업화 영역으로 접어들 뒤 구심력뿐 아니라 원심력도 커지면서 변화가 생겼다. 다양한 영역과 맞물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SM이 클래식 음악계에 가장 적극적으로 손을 먼저 내밀었다. 2020년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삼은 피아니스트 문정재를 대표로 내세운 SM 클래식스를 설립하고, 서울시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도 MOU를 맺었다.

K-팝이 처음 클래식 음악과 마주한 형태는 샘플링이다. SM 소속 그룹이 특히 꾸준히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해왔다. H.O.T. 정규 3집 1998에 실린 곡이자 SM 사가(社歌)로 통하는 '빛'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H.O.T 4집 1999 타이틀곡 '아이야! Yah!' 도입부엔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1.5세대 그룹 신화의 T.O.P.'는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중 정경 일부를 가져왔다.

한류를 이끄는 K-팝이 전 세계를 상대하고

한국어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더해지면서 영어 가사와 함께 샘플링은 더욱 인용의 대상이 됐다. 이탈리아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3악장 '라 캄파넬라'를 샘플링한 힙합인 그룹 블랙핑크의 '셧 다운 Shut Down' 2022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K-팝 최초로 주간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클래식한 K-팝'의 가장 근사한 음악을 들려주는 그룹 레드벨벳은 샘플링을 즐기고,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라이 Lie' 2016는 마누엘 데 파야의 오페라 '허무한 인생' 중 '스페인 무곡'을 샘플링하기도 했다.

K-팝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장르를 흡수할 수 있는 유연성이다. 세계 음악 팬을 아우르는 영리한 전략이다. 특히 SM은 K-팝 개척사로서 자신들의 유산을 'K-팝 클래식'으로 만드는 브랜드에 영리하다. SM 클래식스를 비롯한 멀티 레이블도 이 일환이다.

K-팝과 클래식 음악의 만남은 동시에 지식재산권P 확장에도 방점이 찍힌다. IP 카탈로그가 방대해지면 어떻게든 활용해야 하는 것이 현 대중문화의 산업 문법이다. 그런데 예술성을 지향하더라도 대중음악 속성상 상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행이 힘들다. 아이돌 스타의 문법을 갖고 있는 클래식 음악계는 K-팝이 볼 때 자신들의 노하우를 적용해도 다른 가치를 창출할 영역이 있다. SM 클래식스의 경우는 본격적인 매니지먼트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계도 K-팝의 제안이 반갑다.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고, 공연장 크기 등 산업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돌파구다. 협업이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일단 만나야 한다. 더 잘 봐야 할 건, 시스템 너머의 본질이다. 클래식의 어원은 라틴어 '클라시쿠스classicus'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위해 함대(艦隊)를 기부하는 부자가 클라시쿠스였다. 위기 상황에서 버팀목이 되는 게 클래식인 셈이다. 음악이 쇼트폼의 액세서리 취급을 받을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다고 한편에선 수군대지만, 음악은 어느 시대나 우리를 무장하게 만든다. 그럴 때 클래식 음악·대중음악의 이분법적 잣대는 소용없다.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장르 구분 없는 음악 연대의 전진기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 K-팝과 클래식 음악의 협업은 어쩌면 음악이 곤경에 처한 시대에 필연일지 모른다.

트럼프 2.0 시대, 문화예술의 향방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두 달여가 흘렀다. 취임 첫날부터 26건의 행정 명령을 발동하며 화려한 귀환을 알린 트럼프는 여전히 연일 파격적인 뉴스를 갱신하고 있다. 캐나다에 관세 장벽을 치고, 러시아와 단독으로 종전 협상을 벌이고, 자국 공무원의 대거 감축을 시사했다. 그의 박진감 있는 행보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요즘, 그렇다면 공연예술계는 어떨까?

눈에 보이는 실리가 중요한 트럼프 정부와 그 효과가 단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는 문화예술계는 상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두 번째 취임 후 재빠르게

미국 공연예술과 문화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여러 조치를 시작했다.

트럼프는 이미 첫 임기 시절(2017~2021 대통령 직속 예술·인문학위원회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PCAH(미국 대통령에게 문화 정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연방정부와 예술, 인문학, 박물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설립했다))를 해체하고, 문화 검열을 시도하는 등 예술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했다. 당시 트럼프는 PCAH에 속한 공영방송공사 CPB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고, 국립예술기금 NEA와 국립인문재단 NEH마저

폐지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예술계는 권력에 대한 저항과 담론으로 더욱 활발해졌다. 예컨대 퍼블릭 시어터 Public Theater에 오른 <줄리어스 시저 Julius Caesar> 2017는 황제가 되려는 시저를 트럼프에 빗대 연출했다.뱅크 오브 아메리카·델타 항공 등 퍼블릭 시어터의 주요 후원사들은 이 공연이 올라간 뒤 후원의 일부 혹은 전체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선출된 조 바이든 대통령(2021~2025년 재임)은 경직된 문화예술계를 환기하기 위해 트럼프가 해체한 PCAH를 부활했다. 행정명령 14084(Executive Order 14084(예술, 인문학,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진흥)를 통해서다. 연방이 문화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소외되는 지역이나 분야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다수를 속전속결로 철회했다. 여기에는 14084도 포함됐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폐지한 PCAH를 바이든이 부활하고,



↑ 미국 건국의 주인공 알렉산더 해밀턴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해밀턴>은 브로드웨이에서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작품 중 하나다 ©Joan Marcus
← 2017년 퍼블릭 시어터에 오른 <줄리어스 시저>는 황제가 되려는 시저를 트럼프에 비유했다 ©Joan Marcus/Public Theater

다시 트럼프가 폐지한 셈이다. 14084 명령이 폐지되면서 이제 연방정부는 문화기관을 지원할 의무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얼마지 않아 문화계에 두 번째 소식도 날아들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공연예술센터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의 이사진을 전면 교체하고 자신을 이사회 의장으로 자체 임명한 것이다. 워싱턴 D. C.에 위치한 케네디 센터는 1971년 설립된 미국의 국립 문화센터로, 미국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워싱턴 국립 오페라가 상주하는 곳이다. 연극·음악·무용·오페라 포함 매년 2천 회 넘는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센터의 구조적 부실과 관리 부족을 비판하며,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교체했다. 이사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던 기존의 관행도 깬다. 프로그램도 대폭 수정됐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이니셔티브는 앞으로 민족주의 주제나 미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작업으로 채워진다.

트럼프의 행보는 예술적 자유 침해와 정치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부르고 있다. 뮤지컬 <해밀턴 Hamilton>은 케네디 센터에서 예정된 내년 공연을 취소했다. <해밀턴>을 만든 린 마누엘 미란다 Lin-Manuel Miranda와 총괄 프로듀서 제프리 셀러 Jeffrey Seller는 '뉴욕 타임스'에 "케네디 센터는 이러한 정신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 케네디 센터가 트럼프의 것이 된 이상, 우리는 그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최근 장악함으로써 케네디 센터가 시행하게 될 편향적 정책에 반대한다"라고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해밀턴>이

미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다룬 이야기이며, 미란다는 2018년 케네디 센터 공로상을 받은 바 있고, 2026년 공연이 미국 독립 선언 250주년 기념공연으로 계획된 터라 더욱 메시지가 크다. 이 외에 센터 자문을 맡고 있던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Renée Fleming 역시 자리에서 물러났다. 텍사스주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 Houston Grand Opera는 트럼프 정부의 DEI 이니셔티브 중단 명령에 보란 듯이 라틴 아메리카 예술가의 작품 출연을 지원하는 3개년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초기 날아든 두 뉴스가 썩 밝지만은 않다. 행정명령 14084 폐지로 인해 연방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이 축소되고, 국립 문화예술센터는 트럼프 정부 기조에 어울릴 프로그램을 꾸릴 확률이 높아졌다. 기업은 혹여나 정치색이 드러나는 작품에 연루될까 극장이나 공연 후원에 몸을 사릴 것이다. 아직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대의 걸작은 어려움 속에서 탄생한다는 희망을 붙잡아 본다.

SEOUL
MY SOUL

연극
서울연극
재단
서울무희재단

서울연극센터 프로젝트 봄

ASIA PLAY

아시아 플레이

0403

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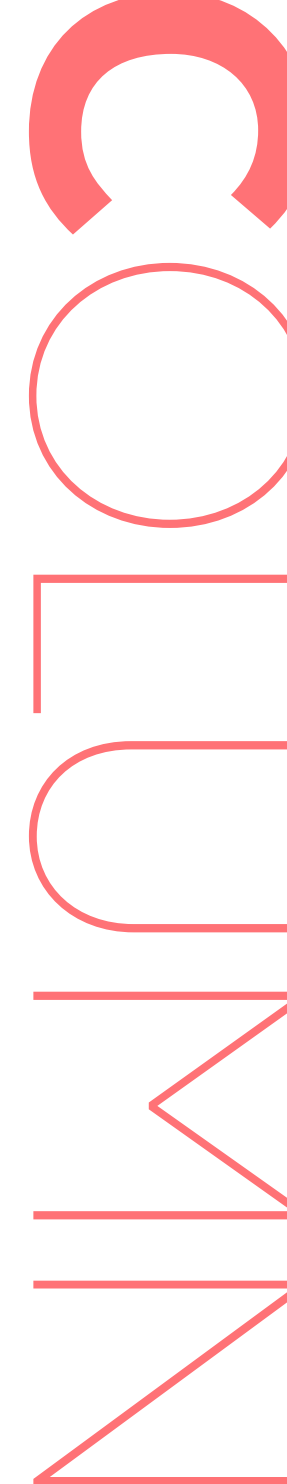
0417

0424

4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연극센터 1층 라운지



동시대적 고전 읽기
나르시시스트 연기하기의 역설
스크린 너머의 세상
'우리'를 넓혀나가는 이야기
현대음악에 주파수를 맞추면
음악, 시간을 다르게 감각하는 일
춤, 이면의 몸짓
사랑한다는 말 대신

나르시시스트 연기하기의 역설

전영지 공연칼럼니스트·드라마터그

아직 객석 등이 꺼지지 않은 극장. 한 사내가 겸연쩍게 웃으며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 나와 객석을 향해 “저기”라며 말을 붙인다. 무대 위 저 사내는 누구인가? 배우의 이름은 안다. 허나 무대와 객석을 동일하게 비추고 있는 조명 아래, 내가 보고 있는 인물은 배우 손상규일 수도, 손상규가 연기하는 허구의 인물일 수도 있을 터. 불확실함에서 비롯된 약간의 초조함이 찾아들 즈음, 사내가 불쑥 입을 연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바인데, 이름이 ‘멕시코시티’라니 좀 뜬금없죠?” 알베르 카뮈 Albert Camus의 소설 『전락 La Chute』 1956을 배우 손상규가 직접 각색하고 연출해 1인극으로 선보이는 무대, 양손프로젝트 <전락>(2025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명동예술극장)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소설 『전락』은 원작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이자 주인공인 장 바티스트 클라망스의 독백으로 이뤄진 일종의 모노드라마다. 한때는 프랑스 파리에서 제법 성공한 변호사였으나 지금은 암스테르담에서 ‘고해 판사 Judge-pénitent’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인물, 클라망스가 우연히 만난 여행객에게 5일간

털어놓는 이야기가 이 작품의 골자인 것. 그는 정말이지 쉴 새 없이 떠들어댄다. 본인도 알고 있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단다. 허나 그건 그의 사정일 뿐. 초면에 이 정도의 수다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진저리가 날 지경인데, 심지어 지독하게 자기 과시적인 이 남자, 클라망스가 하는 이야기는 썩 유쾌하지도 않다.

이들테면, 그는 남을 돕는 걸 즐겼다고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걸 좋아해서 시각장애인이 건널목에서 있으면 멀리서라도 재빨리 달려갔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을 땐 시각장애인의 손을 가로채서라도 그를 도왔다고 말한다. ‘유머인가?’ 싶어 피식 웃어 넘겨보지만, 클라망스는 자신의 밑바닥을 정확하게 인지하기를 바란다는 듯 이야기를 이어간다. 시각장애인을 돕고 돌아설 때는 늘 인사를 했다고. 누가 보라는 인사였냐고? 거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을 사람들, 즉 자신의 선행을 지켜보는 ‘관객’들에게 건넨 인사였다는 걸 본인도 나중어야 깨달았다고 말한다.

“배우, 사람들 앞에선 늘 연기하는 인간.” 뒤늦게 알아버린 자신의 실체다. 몰랐다면 언제나처럼 스스로에 취해 한껏 우월감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각성한 그의 삶은 곧두박질치기 시작한다. 우연한 사건이 계기였다. 클라망스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라며 어쩔사리 말을 이어가지만, 사건의 전말은 간단하다.



©김현미

몇 해 전 어느 가을밤 파리의 센강을 지나던 중 한 여자가 물속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으나 잠시 주저하다 모른 척 지나쳐버렸다는 것. 대낮이었다면, 누군가 보고 있었다면 바로 뛰어갔을 것이라고, 그저 귀찮았던 것일 뿐이라며 그는 과거의 자신을 책망하지만,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 의도된 악행도 아니지 않은가. 사건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의 치부를 힘겹게 고백하는 그를, 오래도록 죄책감에 시달려왔다는 그를 손가락질하기는 쉽지 않다. 센강에서 투신한 여자의 ‘추락’과 함께 클라망스의 삶은 이미 ‘전락’했고, 그는 지금 생의 나락에서 참회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나 연민도 잠시, 클라망스가 덧붙이는 말은 또다시 그에 대한 불쾌함을 증폭시킨다. 그때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자신은 그 이후로 쪽 신문을 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가 시달려온 죄책감은 구하지 못한 그녀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구할 기회를 놓쳐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일 뿐이었다.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예전처럼 완벽한 인간이라는 환상 속에서 ‘높은 곳에서 훨훨 날아다니듯’ 살 수 없어진 것이 그저 안타까웠다니! 기실 “거의 일생 동안 나 자신 말고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고 토로하는 이 남자, 클라망스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다. 심지어 작품의 말미에 이르면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연기演技’였음이 드러난다. 자신의 고백을 듣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본인의 모습을 발견해 자기처럼 죄책감을 느끼도록 유도해온 것이다. 그의 선행이 ‘연기’였듯, 그의 참회 또한 ‘연기’였다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우리 모두를 자신이 있는 진창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일까? 인간이란 본디 자기 본위라 타자를 위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달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여 우리는 영원히 타자와 자기 자신을 동시에 구원하는 그런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결국 진창으로 전락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운명이 아니겠냐고, 클라망스는 자신의 고백을 참혹한 예언으로 같음한다. ‘이미 때는 늦었다고. 영원히 때는 늦을 거라고. 정말 다행이지 않느냐고.’ 클라망스의 회한과 자조가 섞인 참회는 참으로 교묘하고 치밀하다. 이미 독자와 관객은 클라망스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자문한 지 오래. ‘인간이 다 그렇지’ 하는 무기력한 환멸로 곧두박질치는 마음을 어찌할 길 없다. 생을 포기하거나, 클라망스를 뒤따라 또 한 명의—나를 참회함으로써 남을 고발하는—‘고해 판사’가 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만 같다.

정령 전락의 자리를 박차고 상승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이 질문을 품고 나는 잠시 잊고 있던 또 한 명의 배우를 기억한다. 클라망스의 고백이 끝나고 아주 잠깐의 암전 후 다시금 자신의 존재를 상기하는 인물, 기실 클라망스의 ‘연기’

내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자신의 ‘연기’를 해온, 배우 손상규다. 그런데 손상규의 ‘연기’는 클라망스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클라망스가 자신을 위해 거짓을 덧댔다면, 손상규는 클라망스를 위해 자신을 덜어낸다. 높고 낮은 두 개의 사다리 위에 걸터앉은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움직임도 없이, 카뮈의 언어를 무던히도 담백하게 자신의 몸에 담아낸다. 다시 말해, 클라망스의 ‘연기’가—‘퍼포먼스 performance’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듯—‘어떤 형태 form’를 만드는 일’이라면, 손상규의 ‘연기’는 클라망스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내어주는 일’에 가까운 것. ‘완전한 par 제공 fournir’으로서의 ‘연기’. 즉 ‘퍼포먼스’의 어원을 고대 프랑스어 ‘parfournir’에서 찾을 때 발견하게 되는 ‘연기’다.

요컨대, 무대 위에는 두 명의 배우, 두 명의 인물이 있었다. 이 공연이 대단히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연극은 본디 이중적이다. 연극의 공간은 현실인 동시에 환영이며, 배우는 자기 자신인 동시에 허구적 인물이다. 이 두 차원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서로 맞물리고 충돌하고 타협하고 비껴가는 역동을 지속하기 마련. 손상규의 무대 <전락>은 바로 이와 같은 연극의 내재적 이중성을 무기 삼아 카뮈의 『전락』과 맞붙은 것이다. 무해한 존재들의 해방과 연대를 그리는 ‘착한 서사’가 조명받는 이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선하다고 믿는 인물들이 빠지기

쉬운 나르시시즘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지 않느냐는 듯, 손상규는 클라망스를 끌어안은 것이다. 고전을 돌파하는 배우의 고유한 방식이랄까. 그의 몸 안에서 충돌하는 두 개의 '연기' 속에서 카뮈가 쓰지 않은 것들을 발견한다. 필요한 순간 저절로 반응하는 '준비된 몸'을 위한 부단한 훈련을, 환멸과 허무로 가라앉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타자의 세계를 모험하는 분투의 매혹을 본다. '늦지 않는 다음'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의 동력일 터다.

‘우리’를 넓혀나가는 이야기

이다혜 작가, 씨네21 기자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적극적인 사람, 젊고 활기찬 사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울 것이다. 실제로 많은 창작물의 주인공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늘어선 영화 포스터를 보면서 어딘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비장애인, 백인, 남성, 청장년의 세계. 현실의 '일부'만을 확장 반영하는 느낌을 벗어날 수 없는 서사의 나열.

그런데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접해보면 삶 형태의 다양성 그 자체가 이야기의 중요한 축이 되는 작품이 예상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학상의 수상작은 거의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팔라시오R.J.Palacio가 쓴 소설 『원더Wonder』는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임에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118주간 올라 있었고, 스티븐 크보스키Stephen Chbosky 감독의

영화로도 제작됐다. 이 작품의 속편 『화이트 버드White Bird: A Wonder Story』 역시 영화화해 한국에서 개봉했다. 이 두 작품을 통해 '주인공의 자격'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원더>2017의 주인공은 '어기Auggie'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어거스트 폴먼(제이콥 트렘블레이 분)이다. "나는 평범한 꼬마가 아니다"라는 어기의 선언 같은 독백은 넘치는 자신감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 문제로 27번의 성형수술을 거친 어기의 꿈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잦은 수술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어기가 마침내 등교하게 되면서 어기의 가족은 어기를 위한 걱정에서 벗어나고, 어기의 어머니 이사벨(줄리아 로버츠 분)과 아버지 네이트(오언 윌슨 분)는 어기가 열 살이 되던 해, 드디어 어기를 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한다.

<원더>의 동명 원작 소설은 한국에 처음 출간되던 당시 『아름다운 아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사람들이 흔히 걸모습이 아름답지 않다고 하지만 내면은 아름다운'이라는 복잡한 함의를 품고 있는 듯한 이 제목은 영화 개봉 이후 영어 원제 'Wonder'를 그대로 읽은 『원더』라는 제목으로 개정 출간된다. 소설은 주인공 어거스트를 포함해 비아·서머·잭·저스틴·미란다 등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모든 이야기에서 어거스트는 화제의 중심에 있는데, 장애가 있는 동생을, 새 학급 친구를, 친구의 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여러 청소년의 입장을 두루 보여주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작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팔라시오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영화 속 어기와 비슷한 외모의 소녀를 만난 일을 바탕으로 『원더』를 썼다.

영화 <원더>는 주요 인물의 시점을 살리는 동시에 앙상블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남다른 외모를 가진 어기의 학교 적응기를



중심에 두는 영화는 어기를 수동적인 약자로 축소시키지 않는다. 어기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사랑하고 과학에 능한 테다, 크리스마스보다는 핼러윈을 좋아하는 선명한 취향의 소유자다. 빼어난 유머 감각의 소유자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어기의 성격이나 마음을 알기 전에 걸모습을 본다.

그런데 어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할 말은 있다. 어기와 함께 어울리라는 어른의 권유를 받은 잭 윌은 부담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잭은 '눈치껏 행동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어기의 곁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와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한편, 어기의 누나 비아는 어려서부터 어기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가족의 일부가 돼 눈에 띄지 않게 지내왔다. 사랑받고 싶은 어린이라는 건 매한가지지만 수시로 응급상황에 처하는 동생에게 달려가는 부모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상황에 서운함을 드러내는 일이 가족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져 가족 속에 고립된다.

영화는 장애가 있는 주인공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단순한 선악 구도로 인물을 배치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며 그 자리에서 삶을 한없이 나아갈 감정들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배워갈 뿐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심지어 이미 성인인 어기와 비아의 부모도—<원더>의 이야기를 통과하며 변화하고 성장한다. 어기의 등교와 관련한 걱정과 근심은 예상한 난관에 부딪히지만, 그 난관을 뛰어넘을 지혜와 힘 또한 어기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잭은 어기와 가깝게 지내라는 어른들의 말에 저항감을 느끼지만, 자신이 품은 편견을 직시하고 어기와 진정한 친구가 되고자 손을 내민다. 비아는 자신이 부모의 애정을 갈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동생을 적대시하는 게 아님을 받아들인다. 모든 인물은 다른 인물의 배경으로, 중요한 삶의 관계자로 등장한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한편 <원더>에서 어기를 괴롭히는 줄리안은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다. 팔라시오가 그리고 쓴 그래픽 노블 『화이트 버드』를 영화화한 동명의 작품에서도. 영화 <원더>에서 줄리안을 연기한 브라이스 케이사르가 그대로 줄리안을 연기하는 것은 물론이다. 어기를 괴롭혀 학교를 옮긴 줄리안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급우들의 말 한마디도 예사롭게 흘려넘길 수 없는 줄리안은 어느 날 뉴욕을 방문한 할머니 사라(헬렌 미렌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사라의 이야기는 <화이트 버드>에서 액자 속 이야기로 역할하며 사실상 영화를 이끌어간다. 1942년 나치는 프랑스를 점령하고, 유대인인 사라(아리엘라 글레이저 분)의 가족은 빨갱이 흩어진다. 한쪽 다리를 쓸 수 없어 급우들 사이에서 늘 놀림의 대상이던 소년 줄리안(올란드 슈웨르트 분)은 사라가 숨어 지낼 수 있도록 헛간을 내준다. 『안네의 일기』를 연상시키는 흐름의 <화이트 버드>는 <원더>에서 어기를 차별하고 따돌리고 괴롭힌 줄리안이 차별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한다. 이야기를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것. 그리고 ‘우리’의 범주를 넓힐 것. <원더>와 <화이트 버드>가 알려주는 주인공의 조건이다.

음악, 시간을 다르게 감각하는 일

신예술 음악평론가

차로 서너 시간을 꼬박 달려 통영의 관문인 원문고개에 도착하는 순간, 벽차오를

정도로 근사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저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와 길가에 늘어선 야자수, 굽이진 길 너머로 보이는 야트막한 건물들. 봄별은 또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따사로운 빛에 흔들리는 운슬과 야자수잎을 보고 있으면 왜 예술가들이 이 도시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알 것만 같다.

매년 봄을 맞이하는 장소로 통영을 택한 건 순전히 음악 때문이다. 누군가의 봄은 여의도나 남산 벚꽃길에 있겠지만, 내 봄은 원문고개를 지나 통영국제음악당까지 가는 길 위에 있다. 이 머나먼 남쪽까지 찾아와 봄을 보내는 건 이때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어서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대음악, 그중에서도 현대음악의 고전이라 할 만한 작품들, 때론 현대음악의 최신 현대음악이 있어서다.

‘현대음악의 최신 현대음악’이라는 웃기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부연해야겠다. 이 말은 고대부터 이어져온 서양음악사 속 현대음악의 시작점에 놓인 쇤베르크나 그의 제자 같은 작곡가가 아니라 아직 음악사 책에 이름을 적어넣기 이른, 지금 당장 활발히 활동하는 요즘 작곡가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주 작곡가였던 온드르제이 아다메크 Ondřej Adámek는 그 낮은 이름만큼이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체코 출신의 40대 작곡가로, 움직임과 소리, 낮은 이야기와 노래 사이에서 참신한 작업을 선보여왔다. 2023년 <북 오브 워터 The Book of Water>를 선보인 작곡가 미셸 판 데르 아 Michel van der Aa는 50대 네덜란드 작곡가로, 미디어와 극을 섬세하게 다루는 작품을 선보여 많은



2023년 통영국제음악제에서 공연한 <북 오브 워터> ©TIMF

주목을 받아왔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아니라면 베니스 비엔날레 정도는 가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을 이런 작곡가들의 최근 작품을 국내에서 만나는 건 정말 만나기 드문 행운이다.

올해 음악제에서 만날 수 있는 현대음악은 최신보다는 조금 더 고전 쪽에 가깝다. 올해의 상주 작곡가 한스 아브라함센 Hans Abrahamsen은 70대 덴마크 작곡가로, ‘슈니Schnee’와 ‘렛미텔유 Let Me Tell You’ 등 손꼽히는 대표작으로 이미 널리 이름을 떨쳤다. 시간 감각을 절묘하게 다루는 그의 곡을 듣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다가도, 흐르는 것 같다가도,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새 환영처럼 사라지는 것 같기도 했다. 이번 음악제에서는 그가 작곡한 실내악곡·협주곡·오케스트라곡과 편곡 작품을 고루 만날 수 있지만, 그중 제일 기대되는 것은 아무래도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레프트, 얼론 Left, alone’이다.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은 일찍이 모리스 라벨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한 손을 잃은 파울 비트겐슈타인을 위해 쓴 편성이다. 한스 아브라함센이 같은 형식으로 곡을 쓴 건, 그가 태생적으로 오른손을 잘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피아노 음악에 관해 또 다른 시각을 갖게 한 이런 조건이 그의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듣는 것만으로도 몹시 기대되지만, 그 연주를 바로 선우예권이 맡는다는 사실이 한층 더 큰 기대를 품게 한다.

이번 음악제에서 두 차례나 공연될 제라르 그리세 Gérard Griséy의 ‘시간의 소용돌이 Vortex Temporum’도 놓칠 수 없는 현대음악의 고전이다. 대학 시절, 작곡과 선배가 이 곡은 그야말로 “우주대명곡”이라며, 실연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 당부를 잊지 않은 채 나는 8년 전 TIMF양상블의 연주로 이 곡을 들었고, 그것이 정말로 세계대명곡이 아니라 우주대명곡이라는 사실을 몸소 느낀 뒤에 이 곡을 깊이 사랑하게 됐다. 내가 생각하기에 음악이 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감각은 시간을 다르게 감각하는 일이다. 시간이 꼬이고, 흘러가고, 되돌아오고, 반복되고, 중첩되며, 한껏 느껴졌다가 믿을 수 없이 빠르게 흐르는 그런 일. ‘시간의 소용돌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이 곡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마치 어떤 사건을 한 번은 우리의 맨눈으로, 다른 한 번은 고래의 눈으로, 다른 한 번은 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고도 할 수 있겠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소용돌이에 기꺼이 휩쓸려본다면 정말로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현대음악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통영국제음악제의 가장 좋은 점은, 그 어떤 음악제보다도 폭넓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비발디의 음악을 재해석해 또다시 새로운 음향으로 내놓고, 드뷔시의 피아노곡 ‘달빛’과 에펠탑의 정경을 그린 애니메이션을

한자리에서 경험케 한다. 1920년대 무성영화와 그로부터 한 세기 후에 작곡된 음악을 붙이는 묘한 ‘시네콘서트’를 열기도 한다. 이자람의 관소리 공연도, “프로그램 연주 당일 공개”라고 써놓은 재즈콘서트도, 이 시대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브리튼 ‘전쟁 레퀴엠’도 주요 행사 중 하나다. 프로그램을 차근히 보고 있으면 과거와 현재, 또는 전통과 현대가 겹겹이 교차하고 중첩되는 이곳이 꼭 ‘시간의 소용돌이’ 같기도 하다.

음악제를 보고 서울로 돌아올 때면 늘 현대, 또는 동시대가 얼마나 복잡한 시대인지를 곰곰이 되짚게 된다. 현대음악 레퍼토리를 기대하고 간 것이지만 결국 내가 그곳에서 만나는 건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음악들, 현재의 감각으로 예리하게 갈고 닦아진 음악들이다. 그것은 여전히 한국의 고전이기도 하고, 유럽 전통의 토대가 되는 음악이기도 하고, ‘음악’이라는 한 단어로 포괄할 수 없는 어떤 공연이기도 하다. 통영국제음악제는 하나의 구심점을 제시하는 대신 다채로운 현재의 음악을 한자리에 펼쳐놓는다. 서로 다른 음악이 모여 만든 그 장면은 꽤 소란스럽고, 울퉁불퉁하며, 때론 탐미적일 정도로 아름답다가도 까다롭고 낯설기 그지없다. 그 복잡다단한 음악제의 풍경이 나는 너무도 만족스러운데, 그건 오늘의 음악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감각이 이렇게나 다채롭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매번 새롭게 깨닫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김태희 무용평론가

몸은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방법이다. 마음 깊숙한 곳으로 침잠해 정확한 단어를 골라 써내려가는 문장은 담박한 만큼 읽는 이의 심상을 들여다보게 하고, 두근거림과 저릿함의 박동을 짚어나가는 선율은 예술가가 느낀 순간을 재생하게 만든다. 제멋대로 빛어나간 캔버스는 그 다양한 모양새로 하여금 마음먹기에 따라 사랑의 모양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정답이 있겠느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짓은 그 마음을, 감정을 투명하게 비춘다.

몸짓이 담아낼 수 있는 사랑의 모양은 다양하다. 무대에서 몸은 사랑이라는 사건이 체현하는 장소이자 상황이 된다. 무대 위 무용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왜 춤춘다. 그것은 비단 주어진 이야기와 안무를 훌륭하게 구현하는 차원을 넘어 춤이라는 예술적 몸짓을 통해 인물을 체현하는 일이다.

발레는 여러 종류의 춤 가운데서도 사랑 이야기를 많이, 아주 전통적인 플롯으로 다루는 장르다. 감정 표현만 아니라 마음이라 불리는, 통용되는 춤 언어가 더해지면 더욱 그렇다. 그러니 무르익지 않아 그려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은 없다. 몸으로 그려낸 사랑은 너무나 솔직한 탓에 자칫 깨질 듯 연약하기도, 그러하기에 고통스럽도록 뜨겁기도 하다. 천상을 꿈꾸는 발레에서라면 사랑은 더욱이 환상적으로 그려진다.

소설로 출발해 연극·오페라 등 여러 예술 작품으로 변주된 알렉산드르 뒤마 피스 ‘춘희’. 당대 사교계를 누빈 작가의 자전적

경험은 물론, 그가 마음을 품은 실존 여인이 뒤엉켜 완성된 소설은 현실의 어둠이 드리우나 낭만성 또한 간직한 이야기로 남았다. 상류층 남성들의 후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코르티잔이라는 존재, 못 남성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으나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에 마음을 움직이고 미는 마르그리트가 주인공이다. 화류계를 주름잡던 마르그리트는 아르망의 마음에 두게 되면서 코르티잔의 삶을 그만두지만,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이별을 택하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간다. 영원할 것 같던 마음이 바뀌어 자신과의 관계를 저버렸다고 생각한 아르망은 마르그리트를 매몰차게 대하는데, 결국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고서야 여인의 진심을 알게 된다.

20세기에 기록된 최고의 발레 작품 중 하나인 존 노이마이어의 드라마발레 <카멜리아의 여인>¹⁹⁷⁸은 뒤마 피스의 작품 ‘춘희’와 극중극으로 등장하는 ‘마농 레스코’를 적절하게 뒤섞어 드라마성을 한껏 끌어올렸다. 작품에 맞는 음악을 새롭게 쓰기보다 쇼팽의 피아노 음악을 취사선택해 낭만을 강조했고, 의상·무대 등을 통해 그 시절 파리의 풍경을 담아냈다. 클래식 발레의 문법을 지키면서도 극적인 아름다움을 배가하는 움직임은 궁정 시대에 태어난 발레가 오늘날에도 예술 춤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두 사람의 첫 번째 파드되. 아르망은 상체를 숙여 여성의 손등 혹은 발끝에 입을 맞추거나 무릎을 꿇어 자세를 낮춰 이동하고, 높게 뛰고 돌며 터져 나오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한편 마르그리트는 코르티잔으로 살아가는 삶에 불현듯 등장한 진짜 사랑에 혼란스러운 듯 대체로 크고 직선적이며 상승하는 동작을 펼친다. 감정 앞에 사회적 계급마저 내려놓고 충실하게 구애하는 남성, 이와 대조적으로 관성에 저항하려는 여성의 모습은 이들의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으리라는 암시일까.



연인으로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추는 두 번째 파드되는 간절한 피아노 선율에 한결 여유로운 호흡이 돋보인다. 두 사람의 몸짓은 손을 맞잡고 서로 몸을 기대거나 무게를 나누고, 여성을 높게 들어 올리거나 남녀의 신체를 교차해 그림을 그리는 뉘앙스다. 대화하는 춤이 아니라 공감하는 춤, 그리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부여된 약간의 여유에 감정과 연기가 스며든다. 이별한 뒤의 세 번째 파드되는 첫 번째 춤과 대구를 이루면서도 좀 다른 방향을 취한다. 마음만은 여전히 아르망에게 향하기에 마르그리트의 두 팔은 길게 뻗어나가지만, 한창 사랑을 나누던 시절 균형을 이루던 서로의 무게는 이제 틀어진 모양새다. 아르망은 이별을 고하는 마르그리트의 편지를 받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스스로를 확대하듯 폭주한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편지의 내용도, 편지를 써야 했던 마르그리트의 심정도 아니다. 오롯한 그의 감정, 공중에서 두 팔과 다리를 사방으로 뻗은 채 공간을 휘저으며 세상을 잃은 듯 춤추는 무용수이자 아르망, 남성의 마음이다.

이로부터 한 세기 전에도 죽음에 불구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발레가 있었다. 꿈과 환상, 초자연을 향한 이상향을 품은 낭만발레의 대표작 <지젤>¹⁸⁴¹이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으나 숨 가쁘도록 춤추기를 좋아했던 시골 소녀 지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마을에 들어선 알브레히트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이후 그의 정체를 알게 되고는 충격에 숨을 거두게 된다. 결혼식을 치르기 전 죽은 젊은 여성들의 혼령 율리로 둘러싸인 무덤가. 알브레히트는 지젤을 그리워하며 이곳을 찾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했던 것인지 지젤은 죽어서까지 그를 지키고자 또 춤을 춘다는 이야기다.

<지젤>에서 첫눈에 반한 남녀의 애정 전선은 쉽사리 춤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축제 분위기의 1막이 아니라, 오히려 핏기 없는 무채색의 율리들이 등장하는 무덤가의 2막이야말로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을 발견하는 공간이 된다. 낭만발레의 상징과 같은 ‘발레블랑Ballet Blanc(백색발레)’은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새하얀 튀튀를 입은 여성 무용수들의 모습에서 기인하지만, 사실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스무 명 가까운 무용수가 숨 가쁘게 고도의 테크닉을 반복하는 데서 완성된다.

율리들에게 춤은 무덤가를 찾는 남성을 단죄하는 수단이다. 뛰고 돌기를 반복한 끝에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과정은 남성에게 되묻는다. 진정이었느냐고. 한편 알브레히트를 구원하고자 동이 틀 때까지 미르타에게 머리 숙이고 명령에 따르는 지젤의 미친 몸짓은 남성의 배신으로 정신을 잃고 춤추던 1막의 모습과 겹쳐진다. 마음을 다했으나 그 끝에 마주하게 된 고통마저도 지젤이 감내한 사랑이었을까. 비극은 도래했고, 그제야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허상을 껴안고자 계속해서 어긋나는 알브레히트의 몸짓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여성의 현신을 상기한다.

낭만발레와 드라마발레를 대표하는 두 작품을 만나고 싶다면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립발레단 <카멜리아 레이디>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LET YOU KNOW

작년 3월 14일 늦은 저녁,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루 앞두고 리허설에 한창이던 노들섬에 왔을 때, 잔디마당에서 반겨준 해치와 너머로 보이는 야경. 노들섬은 가을도 좋지만 봄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요.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EPILOGUE

따뜻한 햇볕과 봄바람이 나들이를 부추기는 요즘입니다. 문화와 자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고, 연중 즐거움이 가득한 노들섬으로 소풍 오세요!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WITH ALL ONE'S HEART

따스한 햇살 사이로 녹아드는 모두의 애정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봄입니다.

김태희 디자인이끼 에디터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용산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화가 흐르는 노들예술섬

노들섬 소리소리 스테이지 봄날의 K-비트

Nodeul Island Sunset Stage

Spring Day's K-Beat

4.12 토

위뮤

오디움·김윤희×서영도

서도밴드

4.13 일

베리부

돌리밤

턱본니밴드

4.19 토

조민선

구이임

김태연

4.20 일

서도

반도

연대스튜디오

2025. 4.12 SAT - 4.20 SUN

19:00 ~ 20:30

노들섬 잔디마당